[UCI]I804:24011-200000234251

2007년 2월
석사학위논문

푸코의 주체 개념에 관한 연구

– ‘성담론’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노 세 라

2007년 2월 석사학위논문 푸코의 주체 개념에 관한 연구 노 세 라

푸코의 주체 개념에 관한 연구

– ‘성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Foucault's Conception of Subject

2007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노 세 라

푸코의 주체 개념에 관한 연구

- ‘성담론’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설 헌 영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0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노 세 라

노세라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 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 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 대학교 교수　　인

2006년　11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영문초록 ····· ii

Ⅰ. 머리말 ····· 1

Ⅱ. 인간과학의 탄생 - 서구의 근대 주체 형성 ····· 4
1. 르네상스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 - 유사성과 표상 ····· 5
2. 19세기 이후 근대의 에피스테메 - 인간의 등장과 소멸 ····· 8

Ⅲ. 주체 형성의 두 가지 방식 ····· 12
1. 권력과 지식의 산물로서의 주체 형성 ····· 13
1) 권력의 작용 방식과 성담론 ····· 13
2)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bio-pouvoir) ····· 19
2. 윤리적 주체 형성 ····· 23
1) 쾌락의 활용 문제 ····· 24
2) 자신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배려 ····· 30

Ⅳ. 현대 사회와 성(性) ····· 37
1. 현대사회의 성담론 ····· 37
2. 성의 주체로서의 여성 ····· 42

Ⅴ. 맺음말 ····· 48

참고문헌 ····· 51

ABSTRACT

A Study on Foucault's Conception of Subject

- Centering about Discourse of Sexuality -

NO, SE RA
Advisor : Prof. SUL, HUN YOUNG, Ph.D.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e issue of 'subject' was the focus of interest for all modern philosophers, ranging from modern conception of the western subject by Descartes to the post-modern conception of Michel Foucault. Foucault had also studied the history of how in various ways man became subjects. He saw the history of sexuality especially as a history of subjectivation patterns and made interpretations based on archeological and genealogical methodologies. While Sartre saw a human subject as freely and creatively making choices based on his will, Foucault thought of man more as a subordinate being to power structure rather than a free and constructive subject. According to Foucault, a power structure appears in the form of institution, custom, a discourse, or knowledge, from the domination of which no human being is free. This, he thinks, is the most powerful result of discipline.

This study looks at Foucault's conception of subject centering on his theory of sexuality,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in the second chapter, the process in which Foucault constructs his conception of subject will be discussed. The concepts of episteme from the

Renaissance and the Classical era is examined,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the modern western subject. This will be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Foucualt's interpretation that human is a concept of the modern age that can disappear from our interest.

Second, in the third chapter, an in-depth discussion of Foucault's construction of subject using two methods, that is, as a product of power and knowledge, or as an ethical subject, shall be featured. The process of constructing subject by external frames of power, such as pouvoir-disciplinaire, which disciplines subject, and bio-pouvoir, which governs life that acts on human bodies and population, shall be examined. This chapter shall also discuss the reason why Foucault defies the traditional theory of oppressed men, and suggest that his modern discourse of sexuality is based on the concept of hegemony which is maintained by creative rather than oppressive powers.

Next, through an observation of Greek life style, the issue of ethical subjectivation shall be dealt with. The Greeks, in dealing with sexual pleasure, practiced the following three ways in order to maintain discipline and self control; regimen, as a technique for controling one's body and mind; house management, by which a man maintains his household; and the skill of love, as an interactive behavior between an adult male with a younger person in terms of love making. These three items are further elaborated under the headings, 'the physical body', 'the wife', and 'the boys' respectively.

Finally, in chapter four, based on the discussions in previous two chapters, this paper shall summarize the modern interpretation on sexuality. Our modern society is overflowing with discourse of sexuality, mainly as a result of the mass media. However, this has also commercialized human bodies, especially women's bodies, leaving women feeling relatively deprived in terms of sexuality. This chapter will examine the idea of feminity which our society is enforcing upon women, and discuss women as a subject in sexuality within a man-governed social hegemony.

In our modern society, in which rapid fragmentation of past ethical rules is

featured, Foucault requires from us practical attitude which can nurture an alternative form of subject. In order to transform ourselves into such ethical subjects, we must never cease to question or criticize our past history and our background, that is,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our period. What is most important in such construction of the ethical subject should be consideration of ourselves, which underscores kinship, friendship, and social obligation, rather than a closed egotism or self interest. Even today, men and women are confronting each other. Modern women are being oppressed under the title of 'feminity'. Therefore men should try to understand women's point of view and their culture, as well as recognizing them as equal and socially constructed subject of experience. A harmonious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sexes is desperately needed.

Ⅰ. 머리말

주체란 어떤 활동의 수행자, 담지자를 의미하는 철학적 범주를 뜻한다. 데카르트 이래 형성되어 온 서양의 근대적 주체 개념부터 푸코의 탈근대적 주체 개념에 이르기까지 주체의 문제는 모든 근대 철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는 ‘나’가 바로 명석한 판단과 인식의 주체임을 천명함으로써 근대철학의 새로운 출발을 체계화했다. 이에 반해 니체는 명석한 판단과 인식 주체인 인간이 곧 신의 창조자이며 동시에 신의 살상자라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신을 살해한 인간은 그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 나가야 할 뿐이며, 자기 자신을 자신 이외의 다른 이상이나 목적 아래 둔다거나 혹은 자신을 표피적 의식이나 일반화된 군중의 척도에 따라 평가하고 그에 예속시키려 드는 것은 잘못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니체의 철학 정신은 한 마디로 일반성과 군중 대신에 인간 각자의 고유성과 개별성, 즉 실존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니체의 반형이상학적 정신들은 하이데거에게 그리고 푸코를 포함한 포스트구조주의자들에게 계승되었다.[1] 특히 푸코는 니체의 철학정신과 계보학적 방법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근대적 주체 개념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푸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이 주체화되는 역사를 연구하였다. 특히 그는 성의 역사를 쾌락의 활용과 관련된 주체화 양식의 역사(history of subjectivation patterns)로 보고 그에 관한 역사를 고고학적 방법과 계보학적 방법으로 해석한다. 사르트르가 인간 주체를 자유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에 의해 구성해가고 창조해 가는 존재로 보았다면, 푸코는 인간을 자유로운 구성적 주체라기보다는 권력구조의 틀에 예속된 존재로 파악한다. 권력구조는 제도나 관습 혹은 담론이나 지식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인간은 이러한 권력구조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규율을 통해 생산되는 가장 커다란 효과이다.

푸코는 『성의 역사』 제1권 『앎의 의지』[2]에서 지식과 권력의 테두리에서 성을 연구했다. 그는 주체를 권력과 지식의 산물로 보던 태도에서 주체를 욕망의 주체로

1) 뤽 페리·알랭 르노, 『68사상과 현대 프랑스 철학』, 구교찬 외 옮김, (인간사랑, 1997), pp. 175-81. 참조.

2)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이규현 옮김, (나남, 2004)

인식하는 태도로 전환한다. 주체는 욕망을 지닌 성욕의 주체로 발전한다. 주체의 문제를 외부적인 권력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스스로 형성, 변형하는 것에 대한 탐구에 중점을 두게 된다. 푸코는 주체화 절차를 분석하기 위해 객체화 절차를 분석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래서 성의 역사는 욕망인의 역사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주체의 의미는 주체가 자신의 실천과 사고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 형성의 역동적 과정을 푸코는 "존재의 미학", 또는 "존재의 예술"이라고 명명한다. 존재의 미학이 잘 구현된 삶은 고대인들에게서 살펴볼 수 있다. 『성의 역사』 제2권 『쾌락의 활용』[3]과 제3권『자기에의 배려』[4]에서 푸코는 고대인들, 특히 그리스인들과 로마제국 시대의 성적 행위에 관한 담론을 통해서 주체가 어떻게 자기를 윤리적 주체로 만들어 가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주로 『성의 역사』를 통해 푸코의 주체 개념을 아래와 같은 과정에 따라 고찰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푸코가 주체 개념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먼저 르네상스 시대의 에피스테메와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를 살펴봄으로써 서구 근대 주체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고, 인간이 근대의 산물이며, 머지않아 우리의 관심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푸코의 주장을 논의해 보겠다.

Ⅲ장에서는 주체 형성의 두 가지 방법인 권력과 지식의 산물로서의 주체와 윤리적 주체의 형성을 통해서 푸코의 주체 개념에 대해 깊이 고찰한다. 주체를 훈육시키기 위한 규율 권력(pouvoir-disciplinaire)과 신체와 인구라는 대상에 작용하는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bio-pouvoir)을 통해 이러한 외부적 권력 장치에 의해서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겠다. 푸코는 전통적 억압 가설을 거부한다. 그가 억압 가설을 거부하는 원인을 밝히고, 억압적 권력보다는 생산적 권력에 의한 통제가 근대의 성담론에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그리스인들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윤리적 주체화 방식의 문제를 고찰하겠다. 그리스인들이 성품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통제하는 기술과 성윤리를 다루는 방식을 검토해보겠다. 그들은 성적 쾌락의 활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관리법을 실천함으로써 성에 대한 절제와 능동성을 추구해 나갔다.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

---

3) 미셸 푸코, 『성의 역사 2』, 문경자・신은영 옮김, (나남, 2004)
4) 미셸 푸코, 『성의 역사 3』, 이혜숙・이영목 옮김, (나남, 2004)

와 자기를 관리하는 기법으로서의 양생술, 한 가정의 관리인으로서의 남성이 가지는 기법인 가정 관리술,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성인 남성과 젊은 사람과의 상호 행동기법으로서의 연애술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항목들은 각각 “육체, 아내, 소년들”에 관한 서술로 옮겨간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체가 자기를 어떻게 윤리적인 주체로 만들어 왔는지를 밝힐 것이다.

Ⅳ장에서는 앞의 Ⅱ, Ⅲ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 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성담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인간의 몸, 특히 여성의 몸을 상품화함으로써 여성에게 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강요당하고 있는 여성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남성 지배적 구조 속에서 성의 주체로서의 여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푸코의 주체이론을 성담론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푸코의 주체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성의 윤리학을 정교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인간과학의 탄생-서구의 근대 주체 형성

푸코는 『말과 사물』[5]을 통해 근대 문화 속에서 지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형식들을 취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형식들을 취하고 있는 인간과학은 어디에 위치하는 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그는『말과 사물』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명제들을 기초로 하여 인간과학의 이해에 도달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이 의미하는 바는 어느 한 역사적 시기로부터 또 다른 역사적 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 시기마다 모두 서로 다른 지식 개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주어진 시대의 지식 개념은 궁극적으로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물을 바라보는 그 시대의 근본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지식은 항상 사물에 대한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식화하는 문제이므로, 주어진 시대에 있어서 지식의 본성은 진리를 공식화하는 기호들의 본성에 대한 그 시대의 해석에 의존한다. 넷째, 지식을 정식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호들은 언어적인 것들이므로 지식의 특성은 한 시대의 언어 개념에 의존한다.

따라서 인간과학의 인식적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질서 개념과 기호 개념들, 그리고 언어의 개념들을 이해해야 한다. 위 세 가지 개념들이 수반하는 지식의 개념과 이 개념의 집합들은 푸코가 일정한 시대의 에피스테메(épistémè)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한다.[6] 그가 말하는 에피스테메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에피스테메는 일정한 시기에 있어 인식론적 형상들, 학문들 그리고 형식화된 체계들을 낳게 하는 담론적 실천들을 결합하는 관계들의 총체이다. 에피스테메는 매우 다양한 학문 영역들을 넘나들면서 하나의 주체나 정신 또는 어떤 시대의 지배적인 통일성을 나타내는 인식의 한 형태나 합리성의 한 유형이 아니다. 그것은 담론적 규칙성들의 수준에서 학문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 제반 학문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 제반 학문들 사이에서 일정한 시대 동안 발견될 수 있는 관계들의 총체이다.[7]

푸코는 15세기 이후 서양의 전체 지성사를 네 가지의 에피스테메가 단절적으로 교

---

5)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광래 옮김, (민음사, 1997)

6) 개리커팅, 『미셸 푸코의 과학적 이성의 고고학』, 홍은영・박상우 옮김, (백의, 1999), pp. 187-88. 참조.

7) 미셸 푸코,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옮김, (민음사, 2002), pp. 266-67. 참조.

차하는 상황으로 파악한다. 푸코에 의하면, 유사성(ressemblance)의 에피스테메가 지배하던 르네상스 시대에는 언어가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는 암호였다. 이에 비해서 17세기부터 시작되는 고전주의 시대는 동일성과 차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표상의 에피스테메에 의해 규정된다. 19세기 이후의 근대에 들어서면, 표상의 구조가 무너지고 주체의 개념이 중심적인 것으로 떠오른다. 주체의 자기 표상이 주된 에피스테메로 정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표상을 통해서 인간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표상이 이해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1950년대 이후 현대는 의식을 핵심적 구성요소로 보았던 근대 인간관과는 다르게 무의식이 화두로 떠올랐다. 인간과 관련된 무의식을 다루는 정신 분석학, 문화와 연관된 무의식을 취급하는 문화 인류학, 기호와 연결된 무의식을 다루는 구조 언어학이 현대 에피스테메를 체현한다.[8)]

이처럼 하나의 에피스테메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푸코에게 있어 인간은 근대에 태어난 지식의 산물일 뿐이다. 즉, 근대의 지식체계가 바뀌는 순간 인간은 인식의 바깥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1. 르네상스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 - 유사성과 표상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르네상스 시대는 유사성의 에피스테메가 지배하던 시대이다. 이 시대의 사물들은 사물 상호간의 유사성에 의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푸코는 유사성의 형식으로 적합(convenientia), 모방적 대립(aemulatio), 유비(analogy), 공감(sympathies)과 반감(antipathie)을 제시한다.

유사성의 첫 번째 형식은 적합이다. 외양이 비슷하다고 사슴의 뿔을 나무라고 생각했고 인간의 얼굴에 난 수염을 풀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르네상스 시대를 사로잡은 것은 유사성이라는 에피스테메였다. 이와 같은 유사성과 공간과의 연쇄에 의해, 즉 유사한 사물들을 한데 모으고 인접한 사물들을 동화시키는 적합의 힘에 의해서 세계는 마치 하나의 사슬처럼 서로 연결된다.[9)]

두 번째 유사성의 형식은 모방적 대립이다. 이것은 일종의 적합이지만 장소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롭고, 움직이지 않고도 멀리까지 작용할 수 있다. 모방적 대립에는 반영 내지 거울과 같은 어떤 것이 있어서 우주에 흩어져 있는 사물들이 서로에게 대답

8) 윤효녕 외, 『주체 개념의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 165-66.
9) 미셸 푸코(1997), pp. 42-3. 참조.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의 두 눈은 해와 달에 의해 하늘 저편까지 미치는 거대한 밝음의 반영이며, 입은 비너스이다. 그것은 사랑의 키스와 말을 전해주기 때문이다”[10] 그렇지만 모방적 대립은 그것이 산출해낸 두 반영체를 부동의 대립 상태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한 편이 더 약해질 수도 있으며, 다른 한 편의 더 강한 영향에 대해 수동적일 수 있다.

세 번째 형식은 유비이다. 유비는 적합 및 모방적 대립과 중첩된다. 적합과 마찬가지로 인접, 유대 및 합치에 관해서 언급하는가 하면, 모방적 대립과 마찬가지로 공간을 가로질러 유사물들간의 모방적 대립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적합과 모방적 대립은 특성상의 유사성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유비는 관계들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앞의 둘과 마찬가지로 유비는 전체 세계를 묶어내지만, 인간을 이러한 통일체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앞의 둘과 구분이 된다.[11]

네 번째 유사성의 형식은 공감이다. 실재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은 공감을 통해 서로에게 연결된다. 공감은 어떠한 길도 미리 결정하는 법이 없으며 거리도 규정하지 않고 연결고리도 전제하지 않는다. 공감은 어떤 단순한 접촉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례식에서 사용되어 온 장미는 단순히 이전에 죽음과 인접해 있었다는 이유로 그 냄새를 맡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슬픔과 죽음을 느끼게 한다. 공감은 사물들을 서로 같게 만들고, 혼합하고, 사물들의 개체성을 소멸시켜서 이전의 모습에 낯설게 만드는 위험한 힘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르네상스가 어떻게 유사성의 관계에 의해 세계를 배열해 놓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제 더 나아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세계 내에 존재하는 유사성에 대한 지식을 정식화하는 기호들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다.

푸코는 르네상스 시대 에피스테메의 중요한 특징은 세계가 갖는 유사성을 알려주는 기호들 자체가 유사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유사성에 대한 기호로서 작용하는 것은 외징(signature)이다. 외징은 모든 유사성을 지칭하는 기호이다. 즉 유사성의 조짐이나 징후를 뜻한다. 외징 없이는 유사성도 있을 수 없다. 유사성의 세계는 오직 기호들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푸코는 유사성에 대한 인식의 기초는 외징에 대한 발굴과 해독에 있다고 주장한다. 16세기에는 기호를 말할 수 있게 해주고 기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

10) 같은 책, p. 44.
11) 개리 거팅, p. 189.

과 기호들이 어디에 있는지, 기호를 기호로서 성립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법칙 아래 기호들이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이 서로 동반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는 주장하고 있다.[12)]

그러나 17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기호와 사물의 직접적인 관계가 소멸되고 사물을 표상으로 환원하는 시대가 고전주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의 사유 구조는 세계 내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배치 방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요구한다. 배치의 원리는 유사성으로부터 벗어나 동일성과 차이의 관계에 근거하게 된다.[13)]

푸코는 이러한 에피스테메의 변이 과정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적 세계에 대한 하나의 부정이다. 그 이유는 소설 속에서 동일성과 차이에 기초하는 냉혹한 이성이 르네상스 시대의 에피스테메인 유사성들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다.[14)] 돈키호테는 유사성의 세계인 르네상스 시대와 동일성과 차이의 세계인 고전주의 시대를 연결시키는 상징물이다.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돈키호테는 정상인과 다른 광인일 뿐이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돈키호테가 결코 예외적인 인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성의 상상력에 사로잡혀 현실과 허구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는 르네상스의 마지막 인물인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읽은 기사문학과 현실과의 착란 속에서 방황한다. 가축 떼를 군대로, 풍차를 거인으로 보고, 하녀를 귀부인 대접하고, 풍차를 성으로 착각하는 돈키호테의 착란은 르네상스 시대에서만 가능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조그만 마을로부터도 벗어나려 하지 않고, 모든 유사성이라는 표지 앞에서 소심한 순례자처럼 멈추어 버린다. 하지만 소설의 후반부에서 돈키호테는 말의 질서와 사물의 질서 사이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부터 소설은 스스로를 표상하는 하나의 작품이 된 것이다. 일찍이 돈키호테가 지각했던 유사성의 구조는 이제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15)]

이렇듯 고전주의 시대를 규정하는 에피스테메는 표상이다. 사물 속에 감추어진 신의 표지나 사물과 사물 사이의 유사성은 사라지고, 언어는 사물을 재현하는 투명한 도구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앎은 더 이상 추정이 아니라 개별적인 동일성과 차이에 기반한 분류와 분석의 방식이었다. 말은 생각을 표상하고, 그림은 사물을 표상한다. 신이 창조한 세계 안에 모든 존재들을 인간은 언어적 기호 혹은 그림으로 표상할 수

12) 이광래, p. 163.
13) 개리 거팅, p. 196.
14) 이광래, p. 167.
15) 같은 책, p. 167. 참조.

있다고 믿었으며, 그것만이 유일한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표상의 에피스테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류학(taxinomie)이다. 분류학은 사물의 표상들을 동일성과 차이의 표 안에 순서대로 위치시키는 것이다. 인간도 이 표 속에 배치된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종으로 수렴될 뿐 각기 고유의 인생 체험을 가진 유한한 실존으로서의 인간이 놓일 자리는 없다.[16]

*2. 19*세기 이후 근대의 에피스테메 - 인간의 등장과 소멸

근대의 에피스테메 또한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재질서, 즉 사물과 사물들의 상호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수반한다. 푸코는 지(知)의 변이와 새로운 배치를 『말과 사물』의 7, 8, 9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장들은 명제의 이론, 분절화의 이론, 지시작용의 이론, 전이의 이론으로 형성된 언어의 사변형이 그려낸 '일반문법, 박물학, 부의 분석' 대신에 '문헌학, 생물학, 정치경제학이라는 분과들이 인간과학의 주요 부분으로 조직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19세기의 새로운 인식론적 배치는 표상의 한계로 말미암아 언어의 사변형을 거쳐서 살고, 노동하고, 말하는 새로운 지의 삼각형, 즉 새로운 인식론적 공간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사물들은 표라는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서 고전주의 시대적 의미에서는 표상될 수 없었던 계측과 분류라는 내적 공간들을 지식에 부과하기 시작했다.[17] 생명, 노동, 언어는 이제 더 이상 안정된 자연의 속성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고 그 스스로 역사성을 지닌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정치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생산에 대한 분석은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며, 자연의 역사를 수용하지 못하는 지식의 코드인 박물학은 생물학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또한 문헌학은 고전적인 생성문법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선다.[18] 결국 인간이라는 개념은 언어활동의 역사적 변혁의 주체, 노동 생산성의 주체, 생명의 힘을 과시하는 주체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전적 학문의 새로운 학문은 그 앞의 학문을 계승하긴 했지만, 결코 대신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푸코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주어진 에피스테메들 사이에는 서로를 이어주는 교량이 없다는 것이다. 연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16) 박정자, 『빈센트의 구두』, (에크리, 2005), pp. 30-1. 참조.
17) 이광래, p. 187. 참조.
18) 메르키오르, p. 78.

은 에피스테메 안에서 벌어진다.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문헌학, 생물학, 정치경제학은 이전의 일반문법, 박물학, 부의 분석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자리에 대신 들어선 것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 선행 학문이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 그것들이 공백으로 남겨 두었던 공간을 헤집고 들어섰다. 19세기에 있어서 지식의 대상은 고전주의 시대의 존재의 충만성이 침묵 속에 빠져 버린 바로 그 장소에서 형성된 것이다.[19]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푸코는 다음을 말하려 했다. 인간은 문헌학, 생물학, 정치경제학의 3대 과학적 담론의 주제에서 사실적인 존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선을 따라 표현되었던 반면에, 근대적 에피스테메의 범주들은 모두 인간적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유한성은 살아가며, 노동하며, 말하는 개인의 유한성뿐만 아니라 사고하는 개인의 유한성까지도 포함한다. 푸코는 칸트에서 실존주의에 이르기까지 서구 주체철학에서 철학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칸트의 경우 경험적인 것과 선험적인 것 사이의 구분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양자간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20] 이러한 문제의 반성적 행동으로 푸코는 우리에게 인간학에 대한 무지 상태, 즉"인간학적 잠(Le sommeil anthropologique)"[21]에서 깨어날 것을 권유한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와 인간중심주의, 즉 휴머니즘에 사로잡혀 있으며 인간편향적 실재관으로 인해 사고의 한 형식인 역사에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다.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 아래에서는 지식의 중심 주체로서의 인간이 벨라스케스[22]의 그림 <시녀들>(Las Meninas, 1656)의 국왕처럼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면, 근대적 에피스테메는 인간과 탈인간의 불균형을 너무 과도하게 시정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근대적 에피스테메가 인간이 개인적 혹은 집단적 유한성을 통해 지식의 지렛대가 된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인간은 불가해한 에피스테메의 행진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23] 그는 다음과 같이 인간관과 주체 철학의 일면성의

---

19) 미셸 푸코(1997), p. 252.

20) 같은 책, pp. 389-99. 참조.

21) 같은 책, p. 389.

22) 벨라스케스(Diego Rodriguez de Silva y Velásquez), 스페인의 화가로 펠리페 4세 때 궁정화가로 등용되었다.

23) 메르키오르, pp. 80-1.

말로를 예견하고 있다.

> 우리의 사유의 고고학이 금방 보여 주었듯이. 인간은 최근의 발명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그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 만약 이런 배치(인간은 최근의 발명물이라는)가 홀연히 나타난 것처럼 사라져 버린다면,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어떤 형태를 취할지 또 어떤 약속을 가져다줄지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희미한 가능성의 사건이 이런 배치를 무너뜨린다면(가령 18세기 말에 고전적 사유의 터전이 느닷없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그 때 우리는 마치 해변의 모래사장에 그려진 얼굴이 파도에 씻겨 가듯이 인간이 이내 지워지게 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다.[24]

사실 레비스트로스가 인간과학의 중심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이미 선언한 바 있지만, 푸코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레비스트로스는 인문과학의 목표가 인간이나 주체를 구성하여 보편적 이성을 출발점으로 가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체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사고의 보편적 기초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는 구조주의 사상가들에게 반인간주의, 반주체철학으로 이어져서 인간의 죽음, 주체의 죽음이 선포된다. 그의 구조주의는 인간의 행위가 하나의 화학적 요소처럼 과학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레비스트로스가 과학의 이름으로 소망 사항을 말했다면, 푸코는 지식의 운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 인간 지식에 대한 근대 인문주의의 집착은 탈근대 혹은 현대에 오면 차츰 사라지고 새로운 탈근대 신념, 반인간주의적 신념이 나타난다. 인간 주체는 자율적 의식 주체가 아니라 이 자율성이 붕괴되는 혹은 제약을 받는 주체이며 법에 의해 종속되는 주체가 된다. 근대적 에피스테메 이후 또 다른 에피스테메의 물결이 밀려올 때, 지식의 한 공간으로서의 인간은 씻겨져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예언이다. 절대적 사유 주체로서의 인간의 소멸을 뜻한다.

푸코가 생각하는 주체에 대한 연구는 개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질서의 틀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강제하고 길들이는 조건을 통해 그들을 특정한 형태의 주체로 변형시키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푸코는 고고학적 방법론에 의거해 인식으로 환원되지 않고 오히려 인식에 선행하는 담론의 조건을 분석하였고, 계보학적 방법론에 의거해서는 규율이나 감시, 특정한 구조의 감옥처럼, 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조건들을 통해 개인에게 작용하는 권력을 중심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푸코는 근대의 주체철학의 문제설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점에서 근

24) 미셸 푸코(1997), p. 440.

본적으로 전복한다.

첫째, 인식과 사고는 주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근대적 명제를 전복한다. 이와는 반대로 푸코는 주체가 인식하고 사고하는 것은 담론, 에피스테메, 혹은 지식 등과 같은 조건들 속에서이며, 이러한 조건들이 개인들을 특정하게 사고하게 하는 주체로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권력은 어떤 주체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전복한다. 이와는 반대로 푸코는 개인들이 특정한 형태의 주체로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거꾸로 그들을 특정한 형태로 행동하도록 길들이는 권력, 즉 '규율권력',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푸코는 주체가 형성되는 물질적 토대, 다시 말해서 권력의 행사방식을 파악하는 것을 중시한다. 권력이 인간 개개인을 특정한 형태의 주체로 만들어내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는 근대적인 권력관계에서 개개인이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양식의 주체를 스스로 구성해내는 길을 모색하려 한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그리스-로마사회의 윤리 지향적 특징과 기독교사회로 특징 지워지는 규약 지향적 도덕을 비교함으로써 욕망이라는 윤리적 실체를 예속의 양식을 통해 규범화하는 근대적 윤리학에 대해 비판한다.[25]

이처럼 푸코는 권력이 개인들을 근대적 주체로 생산해 내는 방식을 이론화하고, 개인이 스스로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을 이론화했다. 다음 장에서는 개인들이 주체로 형성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5) 김성훈,「푸코의 권력이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05), pp. 27-8. 참조.

Ⅲ. 주체 형성의 두 가지 방식

푸코는 근대성을 역사의 한 시대로 보지 않고 하나의 태도로 인식한다. 근대가 전통과 단절된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근대는 근대 이전의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것이다. 이런 단절을 강조할 때 과거 없는 근대는 그 자체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자신의 근거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근대성은 전통과 결별하고 새 것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시간의 불연속성을 의식한다. 그에게 있어 근대성은(역사적 전통에 뿌리박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 사라져 가는 것, 우연적인 것을 뜻한다. 근대인에게 자기는 이미 만들어져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배후에 본질적인 자기가 숨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근대인은 자신을 고안, 발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생산해야 한다.

푸코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근대에 만들어진 개인들의 주체를 문제 삼고 근대적 자기가 주체로 산출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푸코가 볼 때 근대적 주체는 우연적이고 역사적인 지식과 권력의 복합체가 만든 산물이다. 이런 주체는 규율에 따라 만들어진 유용하고 순종하는 몸을 갖는다. 또한 성 장치에 의해 관리되는 성적 주체이기도 하다. 성 장치에 의해 그 욕망이 만들어진 주체는 자신의 성에서 권력이 부여한 진리를 통해 욕망을 관리한다. 그는 종래의 주체 철학이 상정하는 주체나 인간 개념, 즉 인간이 자율성, 상호성, 인정, 존엄함, 인권을 지닌 초역사적 존재라고 보지 않는다. 그는 근대적 지식의 배치가 말하고, 생명을 지니고, 노동하는 세계의 중심으로 인간을 자리매김한다고 본다. 그는 인간 주체를 이성의 담당자, 자신과 세계의 본질로 보는 사고틀이 지닌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인 성격을 의심하고, 그런 인간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식의 배치나 권력의 작용에 의해 어떻게 주체로 만들어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26)]

결국 근대가 인간, 주체 그리고 자율적 주체를 생산했으며, 이런 생산은 이른바 근대의 에피스테메와 관련된다. 하지만 겉으로는 자율적 실체로 인식되지만 그 속에는 종속성, 즉 규율에 종속되고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고 감시에 종속되는 인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규율화 되고 종속된 인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물론 저항이지만 후기의 푸코는 이런 저항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 새로운 주체화, 새로운 실천으로서의 주체를 강조한다.

---

26) 양운덕, “푸코의 권력계보학", 『경제와 사회』, 제35집, 1997, pp. 108-9.

푸코는 인간이 지식의 대상이 되고, 인간이 구성되는 방식에서 인간이 자신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한다. 이번 장에서는 권력과 지식이 어떤 작용을 통하여 개인들을 주체로 형성했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주체방식인 윤리적 주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권력과 지식의 산물로서의 주체 형성

1) 권력의 작용 방식과 성담론

권력을 보는 눈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권력을 권력자가 강제력을 통해 예속된 자의 의지에 반하여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는 힘으로 본다. 그러나 푸코는 이런 권력관이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권력 관계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권력은 거시구조가 아니라 미시구조이다. 이러한 권력은 사회 속에 분산되어 있고 항상 움직이므로 다양한 권력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권력은 특정한 장소 — 국가, 전제주의, 중앙집권적 구조 — 에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으로 편재하고 단편적으로 분산하는 힘의 그물망이다.[27]

> ‘권력’으로 나는 어느 특정한 국가에서 시민의 복종을 보증하는 제도와 기구 전체로서의 ‘정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권력을 예속화 방식으로 이해하지도 않는데, 예속화 방식은 폭력과는 대립적으로 규칙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끝으로 나는 하나의 구성요소 또는 집단이 또 다른 구성요소나 집단에 부과하고 효과가 연속적으로 파생되어 사회체 전체에 스며들 일반적 지배체제의 의미로 ‘권력’이란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 권력의 관점에서 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국가의 주권이나 법의 형태 또는 지배의 전반적 단일성을 애초의 여건으로 상정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들은 오히려 권력의 말단 형태일 뿐이다. 내가 보기에 권력은 우선 작용영역에 내재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다수의 세력관계, 끊임없는 투쟁과 대결을 통해 다수의 세력관계를 변화시키고 강화하며 뒤집는 게임, 그러한 세력관계들이 연쇄나 체계를 형성하게끔 서로에게서 찾아내는 거점, 반대로 그러한 세력관계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괴리나 모순, 끝으로 세력관계들이 효력을 발생하고 국가 기구, 법의 표명, 사회적 주도권에서 일반적 구상이나 제도적 결정화가 구체화되는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할듯하다. 즉, 권력은 제도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며, 몇몇 사람이 부여받았다고 하는 어떤 강권(强權)도 아니다. 권력은 어느 주어진 사회의 복잡한 전략적 상황에 부여되는 명목(名目)이다.[28]

---

27) 이광래, p. 237. 참조.

들뢰즈가 지적했듯이, 푸코에게 있어서 권력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분산된다는 점에서 국소적이지만, 동시에 장소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소적이 아니기도 한다. 권력이란 분산되는 힘들의 체계인 것이다.[29] 이처럼 권력은 통치권의 중심 속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편재해 있다. 푸코는 권력의 편재성을 다섯 가지 명제로 설명한다.[30]

첫째, 권력은 무수한 요소들에 의해, 그리고 불평등하고 유동적인 관계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사된다. 권력은 저절로 얻어지거나 저절로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권력 관계는 다른 형태의 관계들(경제적 과정, 인식 관계, 성적 관계)로 표면화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관계들에서 발생하는 분배, 불균등, 불균형의 직접적 결과이며, 이 관계들의 내적 조건이기도 하다. 권력 관계는 작용하는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권력은 아래로부터 나온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가 명확하게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생산기구, 가족, 국한된 집단 제도들 안에서 형성되고 작용하는 다양한 세력관계가 사회 전체를 가로지르는 매우 폭넓은 분열 효과에 대해 받침대의 역할을 떠맡는다고 추정해야 한다.

넷째, 권력 관계는 지향적이고 비주관적이다. 권력 관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그것이 인과율에 따른 결과여서가 아니라, 권력 관계 구석구석에 계산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목적과 목표가 없는 권력은 없다는 점에서 권력은 지향적이며, 권력은 어느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비주관적이다. 지배계급도, 국가 기구를 통제하는 그룹들도, 혹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도 한 사회 안에서 작용하는 권력망의 전체를 관장하지는 않는다.

다섯째, 권력이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저항은 결코 권력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 관계는 많은 저항의 거점들이 작용할 때에만 존재한다. 저항의 거점들은 권력망의 구석구석에 들어 있다.

푸코는 이러한 권력 개념, 즉 권력 미시물리학에 의해서만 오랜 동안 정치사상을 지배해 왔던 군주의 권력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7세기 이전까지의 권력관계를 특징짓는 것은 군주의 권력이었다. 군주의 권력은 노예뿐만 아니라

---

28)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pp. 112-13.

29) 미셸 푸코, 『담론의 질서』, 이정우 옮김,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5), p. 133.

30)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p. 113-16. 참조.

자식의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로마 시대의 가부장의 전권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피지배자의 생산물, 재산, 노동, 생명 등을 징수하고, 갈취하고, 전유하며,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푸코는 이러한 군주권력기제의 성격을 한마디로 '죽게 하거나 살게 내버려 둘 권리'[31]라고 표현한다. 과거에 자살은 죄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군주만이 행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자살은 사회학적 분석의 영역에 포함되는 최초의 행동 중 하나가 된다. 푸코는 자살이 삶에 행사되는 권력의 경계와 틈새에 개인적이고 사적인 죽을 권리를 출현시켰다고 본다.[32]

17세기 이후 고전주의 시대에 접어들어 군주 권력의 성격이 급격히 변모하면서 새로운 권력기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권력기제는 기존의 군주 권력처럼 여러 세력들을 방해하고, 복종시키고, 파괴하기에 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세력들을 선동하고, 강화하며, 통제하고, 훈계하며, 조직하는 속성으로 변화되어 전반적으로 삶을 관리하는 쪽으로 권력 행사의 방향을 달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푸코는 이러한 변화된 권력의 성격을 '삶에 대한 권력'으로 표현하고 있다.[33]

『감시와 처벌』[34]에서의 푸코의 주된 관심은 권력 자체보다 근대적 주체가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권력에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자아는 주로 권력의 도구로, 또는 권력의 제물로만 여겨졌을 뿐 권력에 의해 자아가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해서는 미처 고려되지 못했다. 권력의 내부 공간에서 관찰되는 자아에 관한 기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성의 역사』에서부터이다. 이 책은 그의 권력의 계보학을 주체의 내부에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를 위해 그가 택한 주제가 그의 역사적, 분석적 연구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한 권력의 기술과의 관계 아래 진행되는 성, 또는 성에 관한 담론의 문제였다.[35]

『성의 역사』 제1권 『앎의 의지』는 성을 낳는 권력이란 본질적으로 억압적이라

---

31)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p. 152.
그러한 권리는 칼로 상징된다. 권력이 주로 징수의 수단, 갈취의 기제, 일부분의 부를 전유할 권리, 피지배자들로부터 생산물, 재산, 봉사, 노동, 피를 강제로 빼앗는 관행으로서 행사된 역사적 유형의 사회인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 권력은 무엇보다도 사물, 시간, 육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생명에 대한 탈취의 권리였으며, 생명을 빼앗아 그것을 없애는 특권이었다.

32) 홍은영, 『푸코와 몸에 대한 전략』, (철학과 현실사, 2004), p. 129. 참조.

33) 손장권・이경상, "미셸 푸코의 근대적 주체구성론", 『교육논집』, 제25집, 1995, p. 141.

34)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 2003)

35) 이광래, p. 235.

는 가정에 근거해 있다. 17세기 이래 서구의 역사는 공공연한 자리에서 성을 언급하는 일이 통제되고, 성의 표현은 모험으로 취급될 만큼 조심스런 행위로 간주되었다.

> 이러한 대낮에 뒤이어 짧은 황혼이 이어졌을 것이고 급기야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부르조아지의 단조로운 밤이 다가왔을 것이다. 그때 성은 은밀하게 유폐된다. 성의 거처가 바뀐다. 부부중심의 가족이 성을 몰수한다. 그리고 성을 진지한 생식기능으로 완전히 흡수해 버린다. 섹스를 중심으로 침묵이 감돈다. 합법적이고 생식력이 있는 부부가 지배자처럼 군림한다. 부부는 비밀의 원칙을 확보함으로써 본보기로 강요되고 규범을 강조하며 진실을 보유할 뿐 아니라 말할 권리를 갖는다. 각 가정의 심처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간에서도 인정되는 성의 배출구, 유일하나 공리적인 다산성의 장소는 부모의 침실이다. 나머지는 희미해지기만 할 뿐이고, 예절에 맞는 태도로 인해 육체는 따돌림의 대상이 되며, 점잖은 말로 인해 담론은 색깔이 하얗게 바랜다.[36]

성의 역사를 억압의 역사로 보고, 이 억압이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려면, 성에 대한 통제는 가난한 계층을 유용한 생산력을 담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들의 힘을 노동활동에 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성에 투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37]

그러나 푸코는 이러한 억압이론에 따르지 않는다. 그는 성에 관한 억압의 가설에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성에 대한 억압이 정말로 자명한 역사적 사실인가? 둘째, 권력의 역학, 특히 우리의 사회와 같은 사회에서 작용하는 권력의 역학은 요컨대 억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일까? 셋째, 억압을 겨냥하는 비판적 담론은 그때까지 이의 없이 기능한 권력 메커니즘의 통로를 차단하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억압이라고 부르면서 비난하고 왜곡하는 것과 동일한 역사적 망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일까? 억압의 시대와 억압의 비판적 분석 사이에 정말로 역사적 단절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푸코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성에 대한 전반적인 담론의 진상과 성의 담론화를 고려하는 것이며, 권력의 다형적 기법들을 아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담론의 산물들에서 버팀목과 동시에 도구의 역할을 하는 ‘앎의 의지’를 도출하는 것이었다.[38]

---

36)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p. 26.

37) 양운덕, 『미셸 푸코』, (살림, 2005), p. 76.

38)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pp. 33-5.
이규현은 『성의 역사 1』 초판에서는 ‘성’으로, 재판에서는 ‘섹스’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성’으로 통일하겠다.

권력은 억압하기보다는 생산한다. 권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쉽게 받아들여지는 까닭은, 권력이 단순히 부정적인 힘으로서만 우리에게 강요되지 않고, 사물들을 생산하며 쾌락을 산출하고 지식과 담론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39] 권력은 이데올로기화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진리값를 생산하는 것이다. 푸코는 성이 권력에 의해 억압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성해방론자들이 성이 억압되어 있으므로 성을 많이 얘기하고, 공공연하게 문제삼고, 성을 더욱더 추구하는 것이 해방이라고 보는 입장을 거부한다.

> 권력 관계에서 성은 가장 은밀한 요소가 아니라 가장 많은 활동에 이용될 수 있고 가장 다양한 전략에 대해 거점 또는 연결 지점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오히려 가장 큰 도구성을 갖추고 있는 요소의 하나이다.[40]

새로운 권력의 형태는 대상을 조사하고, 관찰하고, 분류하는 방식으로 통제한다. 의학적 검사, 정신의학적 연구, 학교의 성적표, 가정에서의 통제 등 여러 가지 도구와 방법은 한결같이 비정상적인 성과 비생산적인 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권력의 새로운 형태는 비정상적이고 비생산적인 성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지만 사실상 쾌락과 권력의 이중적 충동의 메커니즘의 구실을 한다. 권력은 지속적인 검토와 관찰을 실행하며, 고백을 강요하는 질문으로 얻어내기 어려운 속내 이야기는 담론으로 끌어내려 한다. 권력은 행사될수록 추진력을 얻게 되고, 고백의 강도에 따라 질문자의 호기심은 활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쾌락은 권력과 함께 끝없는 나선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 질문하고 감시하며 숨어서 노릴 뿐더러 엿보고 뒤지며 만져볼 뿐만 아니라 밝혀내기도 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쾌락,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권력에서 벗어날, 이러한 권력을 피할, 이러한 권력을 속이거나 왜곡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불붙는 쾌락. 추적의 대상인 쾌락에 침입 당하게 되는 권력, 그리고 이것의 맞은편에는 쾌락 속에서 명확해지면서 모습을 나타내거나 분개하거나 저항하는 권력, 장악하기 위한 술책과 유혹, 대결과 상호적 보강, 가령 부모와 자식, 어른과 청소년, 교육자와 학생, 의사와 환자는 히스테리 환자와 성도착자에 대해 정신의학자가 그랬던 것처럼 19세기부터 끊임없이 이러한 상호작용을 실행했다. 이러한 소환, 이러한 회피, 이러한 순환적 선동으로 인해 섹스와 육체의 주위에는 뛰어넘지 못할 경계가 아

39) 윤평중,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 합리성과 사회비판』, (교보문고, 2000), p. 195. 재인용.
40)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p. 123.

니라 권력과 쾌락의 '끝없는 나선'이 배치되었다.[41]

성에 관한 담론은 억압, 금지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틀에 따라 생산, 조절된다. 푸코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성 장치(le dispositif de sexualité)의 작동 메커니즘 중에서도 중세 이래 서구 사회에서 성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 고백에 주목한다. 1215년 라테라노 종교회의에서 고해성사의 규칙이 결정된 이래 서구 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성에 대해 말해야 하는 금욕주의적 전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 규칙은 초기에는 아주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적용되었지만 17세기 이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반규칙으로 확대됐다. 서구 사회는 고백의 사회가 됐다. 물론 성에 대한 고백은 고백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고백 의식은 다양한 분야에서 권력의 분산과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신체와 인구, 사회를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한 권력의 기술로 이해된다.

고백의 효과는 사법, 의학, 교육, 가족 관계, 애정 관계, 가장 일상적인 영역, 가장 엄숙한 의례로 멀리 퍼져나갔고, 누구나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며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몽상을 고백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고백하며 자신의 질병과 빈곤을 고백할 뿐더러, 누구나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을 최대로 정확하게 말하려고 열심이고, 누구나 자신의 부모, 교육자, 의사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고백을 하며. 다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고백은 기쁨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만이 볼 수 있을 뿐인 글로 씌여지기도 한다. 누구나 고백한다. 아니 어쩔 수 없이 고백해야 한다. 고백이 자발적이지 않거나 내면의 어떤 요청에 의해 행해지지 않을 때에는 위협이나 술책에 의해 고백이 억지로 강요된다. 누구나 고백을 영혼 속에서 내몰거나 육체에서 받아낸다. 중세 이래 고문은 고백에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고백이 회피될 때 고백을 지속시킨다. 서양에서 인간은 고백의 짐승이 되었다.[42]

고백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은 권력의 작용 때문이다. 즉, 고백은 서구 사회에서 권력-지식이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수세기에 걸쳐 이룩해낸 절차이다. 성에 관한 언급은 권력의 기능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8세기 이후에는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추기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선동이 일어난다. 성을 단순히 나쁜 것, 할 수 없이 치러야 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효용체계 안에 삽입시

41) 같은 책, p. 67.
42) 같은 책, pp. 80-1.

켜야 하며, 공익을 위해 통제해야만 하며, 최적의 조건에 따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제 성은 통치의 문제가 된다. 18세기에 나타난 많은 권력 기술상의 새로운 점들 가운데 하나는 인구가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등장했다. 정부는 출생, 발병률, 수명, 생식력, 건강 상태, 질병의 발생빈도, 식생활과 주거 형태를 내포한 인구가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다.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성은 하나의 공공연한 쟁점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담론, 지식, 분석, 명령들의 전 조직망이 그것을 둘러쌌다.[43]

근대는 중세의 고백장치 대신에 인구통계학, 생물학, 의학, 정신병리학, 심리학, 윤리학, 교육학, 정치비판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생산한다. 성담론은 자녀와 부모, 학생과 교사, 환자와 정신병과 의사와의 사이에서 심문, 진찰, 자전적 이야기, 편지 등을 통해서 생산된다. 이러한 담론들과 성 장치들은 성을 관찰하고, 건강한 성을 제시하고, 일탈을 감시하고 규제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성에 침묵을 강요하기보다는 성에 관한 담론들을 관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부모는 아이의 건강과 건전한 정신을 위하여 교사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아이의 성적 진리를 찾아내려 한다.

서구 문명은 엄청난 성담론을 증가시켰다. 이런 성 담론들은 권력 바깥에 있는 것도, 그것에 대항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성을 말하게 하고, 듣고 기록하는 장치들, 관찰하고 질문하여 정식화하는 절차들을 마련한다.[44] 이러한 푸코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근거는 바로 생산 가설이다. 17세기 이래 성의 주요한 특징은 억압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와 개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있다.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더불어 성에 대한 담론은 생체 권력의 한 양식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러한 맥락은 푸코가 성담론의 억압 가설을 생산 가설로 대치시키는 논거인 셈이다.[45]

2)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bio-pouvoir)

18세기 말까지는 성행위에 관한 담론과 실천의 본질적 특징은 허가된 것과 금지된 것, 그리고 결혼에 대한 법률 및 부부간의 성관계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부터 등장한 성에 대한 새로운 담론은 성적 활동을 기존의 이항 대립적 분류방

43) 같은 책, pp. 46-7. 참조.

44) 양운덕(2005), p. 69.

45) 송은희,「푸코의 성담론에서 보여지는 권력개념」,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1998), p. 14. 참조.

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조망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담론들은 19세기에 성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분석의 토대를 형성한 문제들과 관계하거나 인구통계학적 분석과 관계했다. 기존의 성담론이 성적 결합에 대한 법률과 부부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성담론은 부부관계를 전적으로 도외시하고 부녀자, 미친사람, 자연에 위배되는 성적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성에 관한 이러한 새로운 담론은 네 개의 전략에 따라 생성되었다.

첫째, 여성 육체의 히스테리화 : 여성의 육체는 성적 욕망만 가득찬 몸뚱아리이며, 특정 병리학에 의해 여성의 육체가 의학의 한 부분으로 되었다. 여성의 육체는 사회 전체, 가정 공간, 어린아이의 인생과 유기적인 연관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때 신경질적인 여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어머니는 히스테리화 작업의 중심에 서 있다.

둘째, 어린이의 성에 대한 교육화 : 모든 어린이들은 성적 활동에 몰두할 가능성을 지닌 성행위자로 간주된다. 동시에 그러한 행위는 자연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이 행동은 육체적 도덕적 위험과 집단적 개인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성과 접해 있는 아주 위험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어서 부모, 가족, 교육자, 의사, 심리학자들은 유해한 성의 씨앗을 감시해야만 한다. 이 같은 교육화는 서양에서 두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자위에 대한 싸움으로 나타난다. 어린이의 자위는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정교한 감시, 통제 기술, 끊임없는 도덕화, 끊임없는 경계의 요구, 죄의식으로의 지속적인 자극, 의학적 발전 등은 오직 어린이를 자위의 습관에서 분리시키는 데 주목했다.

셋째, 생식 행동의 사회관리화 : 사회 복지라는 명분으로 경제적, 정치적, 의학적 수단을 통해 부부의 생식 행동을 관리한다. 부부는 의학적, 사회적 책임을 모두 부여받고 신체 정책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 질병이나 난잡한 성교 등은 성도착이나 유전적 돌연변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학정보들이 부부 성생활을 지식의 관리 영역 안으로 이끈다.

넷째, 도착적 쾌락의 정신의학으로의 편입 : 본능은 생물학적 본능과 정신적 자율성으로 분리되었다.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비정상을 임상적으로 분석했고, 그 분석을 통해 그러한 행위 전체를 정상화하고, 병리적으로 치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46] 정신 병리학자들은 성도착자로 분류된 환자의 내면세계로 무차별 침투해 들어가서 이성의 지배 전략화를 집요하게 실행해 왔다고 푸코는 비판한다.

---

46)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pp. 123-25.

푸코는 이런 권력의 전략이 성을 억압하거나 거세하지 않고 성을 일정하게 생산한다고 지적한다. 지식과 권력의 전략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여 육체를 자극하고, 쾌락을 증대시키고, 성담론을 부추긴다. 그는 성의 진리를 생산하는 장치와 함께 성을 매개로 인간의 생명을 관리하는 장치에 관심을 갖는다.

삶에 대한 권력은 17세기 이래 두 가지 형태로 전개 되었다. 첫 번째 형태는 규율을 특징짓는 권력의 절차, 즉 인체의 해부 정치학(anatomo-politique)이다. 이는 기계로서의 육체에 중심을 두었다. 해부 정치학은 육체의 조련, 육체적 적성의 최대 활용, 체력의 착취, 육체의 유용성과 순응성의 병행 증대,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통제 체계로의 육체의 통합을 확고하게 한다.

두 번째 형태는 인구를 대상으로 한 생체 통제 정치학(bio-politique)이며, 이는 증식, 출생률과 사망률, 건강의 수준, 수명, 장수, 그리고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반 조건들에 개입하며 그 조건들을 떠맡게 된다. 국가는 시민들의 성과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관례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했으며, 시민들도 제각기 자신의 성을 이용하는 습관을 통제해야만 했다. 어린이들의 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은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그것을 둘러싸고 수많은 제도적 장치들과 담론의 전략들이 전개되었다. 교육 제도 역시 그들의 성에 관한 담론의 형태들을 세분화시켜 왔다. 육체의 규율과 인구의 조절은 삶에 대한 권력의 조직화가 전개되는 영역에서 두 극을 이룬다. 이 두 개의 극점은 푸코에 의해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bio-pouvoir)'의 개념으로 함축된다.

18세기 말 새로운 성의 기술체계가 생겨난다. 새로운 기술체계는 교육학, 의학, 경제를 매개로하여 성을 세속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더 분명히 말하자면 사회체 전체와 거의 모든 개인이 감시당하는 처지로 전락하는 사태로 만들었다. 그것은 또한 세 가지 축, 즉 어린이의 특수한 성을 겨냥하는 교육학의 축, 여성에 고유한 성적 생리를 겨냥하는 의학의 축, 마지막으로 자연발생적이거나 계획된 출산 조절이 목적인 인구통계학의 축에 따라 전개된다.[47]

그러나 19세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 성의 의학이 인체에 관한 일반 의학으로부터 분리된다. 성도착에 관한 의학적, 심리학적 영역이 개척되고, 유전 분석에 힘입어 성(성적 관계, 성병, 부부의 결합, 성도착)은 종으로서 인간은 생물학적 책임을 갖게 된다. 성은 통제되지 않으면 질병을 옮기거나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다른 질병을

47) 같은 책, p. 136.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출산, 생존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조직하려는 의학적, 정치적 기획이 나타난다. 성과 성의 생식력은 행정적으로 관리되게 되었다.[48] 이런 맥락에서 푸코는 생명을 관리하고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그것에 대한 통제와 조절을 행사하려는 권력의 작용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근대적 개체의 생명은 어떻게 관리되는가하는 문제이다.

푸코에 따르면 이러한 통제 관리의 주체로서의 권력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규율의 개념에 입각한 '인체의 해부 정치학'과 규칙적 통제의 개념에 입각한 '인구의 생체 통제 정치학'이 그것이다.

> 최고 권력을 상징하던 죽음의 오랜 지배력은 이제 은밀하게 육체의 경영과 생명의 타산적 관리에 포함된다. 다양한 규율, 가령 초등학교, 중등학교, 병영, 일터가 고전주의 시대에 급속하게 발전한 현상, 또한 정치적 실천과 경제적 관측의 영역에서 출생률, 수명, 공중보건, 주거, 이주의 문제가 대두된 현상, 따라서 육체의 제압과 인구의 통제를 획득하기 위한 다수의 다양한 기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생체-권력의 시대가 열린다. 생체-권력이 전개되는 두 가지 방향은 18세기에도 여전히 명확하게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규율의 측면에서 생체-권력은 군대나 학교 같은 제도이고, 전술에 관한, 수련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회의 질서에 관한 성찰이다.[49]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란 단지 죽음의 위협을 통해 스스로를 유지·재생산하는 힘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최대로 보장하려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힘이다. 앎이 통제되고 권력이 개입하는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옮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 때문이다.[50]

푸코는 이 생명관리 권력을 자본주의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로 본다. 신체를 자본주의 생산 체제 안으로 편입시켜 신체와 인구를 증가하고 강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가 확고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생명관리 권력이 인력의 축적을 자본의 축적에 맞추어 조절하고 집단들의 증가를 생산력의 확대와 이윤의 차별적 분배에 결부시키는 것이 자본의 운동과 사회관계의 바탕을 마련한다고 본다. 그러기위해서는 살아있

---

48) 같은 책, pp. 137-38. 참조.

49) 같은 책, p. 156.
생체-권력은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bio-pouvoir)'의 다른 명칭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으로 통일했다.

50) 송은희, p. 15. 참조.

는 신체에 투자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지닌 힘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신체, 생명에 대한 관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조건이 된다.[51]

푸코는 『성의 역사』 제1권 『앎의 의지』에서 권력의 작용에 의해 개인이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서 권력에 대항하는 개인들의 주체적인 행위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권력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주체의 구성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푸코는 자기 결정과 자율성의 측면을 본질적 요소로 생각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성담론에서 윤리적 주체 형성의 과정을 찾고자 한다.

2. 윤리적 주체 형성

푸코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들의 성생활을 지배하는 문제가 성적 욕망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도덕성이나 자유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 착안했기 때문이다.[52] 『성의 역사』 제1권 『앎의 의지』가 성을 객체로 다루 있는 반면, 『성의 역사』 제2권『쾌락의 활용』과 제3권『자기에의 배려』에서는 인간주체가 어떻게 성에 대해 사색하고, 성에 충실했는가를 다루고 있다. 그는 지배와 권력의 테크놀로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타자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이 행사하는 지배의 테크놀로지에서 얼마나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역사, 즉 자기의 테크놀로지에 역점을 둔다.[53] 17세기 이래 논의되어 왔던 성의 담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대 그리스·로마의 성적 쾌락의 활용이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주요계기로서 등장한 것이다.

들뢰즈에 의하면, 『쾌락의 활용』과 『자기에의 배려』는 이전의 저작들이 17-19세기에 이르는 짧은 시기를 다루었던 반면에 그리스인들로부터 시작해 기독교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는 긴 시기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푸코는 권력 관계나 지식 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자기와의 관계를 발견했다. 『성의 역사』 제2권과 3권에서 권력과 지식이라는 이중적 관점에서 성을 탐구했던 『앎의 의지』와의 단절이 생긴다.[54] 성에 관한 담론 중에서도 이 시기에 푸

51)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p. 158. 참조.
52) 오생근, "『性의 역사』와 성, 권력, 주체", 『사회비평』, 제13집, (나남, 1995), p. 69.
53) 미셸 푸코,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희원 옮김, (동문선, 2002), p. 37.
54) 질 들뢰즈, 『푸코』, 허경 옮김, (동문선, 2003), p. 154.

코의 관심은 자기와의 관계에 있었다. 그의 사고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축인 지식, 권력, 자기 가운데서도 마지막을 지배하는 축은 '자기'인 것이다.

푸코는 성욕의 주체인 개인의 자기의식이라는 구체적 경험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려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욕망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는 금지의 관점에서 본 도덕적 체계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의 통제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본 윤리적 문제틀의 역사를 쓰게 된다.[55]

1) 쾌락의 활용 문제

푸코는 기독교의 성도덕과 고대 이교주의의 성도덕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전통적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교도와 기독교의 성적 풍습 사이에 가로놓인 커다란 차이점은 무엇인가?

> 기독교는 성행위 자체의 가치를 악, 죄, 타락, 죽음과 연결시키는 반면, 고대에는 그것에 긍정적인 의미들을 부여했다. 기독교는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서와는 달리 일부일처의 결혼에서만 부부관계를 용인했고, 이러한 관계는 오직 생식만을 목표로 한다는 원칙을 부여했다. 동성관계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그것을 엄격히 배척하는 반면 그리스에서는 적어도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고무시켰고 로마에서는 그것을 용인했다. 우리는 이 같은 세 가지 주요 대립점에 기독교가 이교 도덕과는 달리 엄격한 금욕, 영원한 순결, 그리고 동정성에 지고의 도덕적, 영적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이 모든 점들에 대해 — 성행위의 본성, 일부일처제에의 충실성, 동성애 관계, 순결 — 고대인들은 무관심했고 그것이 그다지 그들의 주의를 끌지도 못했으며, 그들에게 있어 별로 민감한 문제가 되지도 않았던 것 같다.[56]

성담론과 관련해서 고대 그리스 문화와 초기 기독교 사이에는 표면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성과 관련된 지나친 방탕을 경계하며, 결혼 관계의 성실성이라는 덕목을 존중한다. 근친상간은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여성은 남성에게 복속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훨씬 관용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두 문화 모두 성, 그리고 성과는 다른 종류의 쾌락들을 절제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55) 메르키오르, pp. 201-2. 참조.
56) 미셸 푸코, 『성의 역사 2』, p. 29.

지혜에 주목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성적 절제에 대해 보편적이고 강제적인 도덕적 법칙을 요구한 반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기 결정과 자율성의 측면을 본질적 요소로 보았다. 고대인들은 기독교에서처럼 만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통합된 도덕적 규범을 정식화시키지는 않았고, 개인이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성적 실천을 강조했다. 따라서 성적 절제를 실행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개인들이 훨씬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의 개인들은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57] 이러한 자기 형성의 과정을 푸코는 '존재의 기술'이라고 명명한다. 다시 말해 고대에 도덕적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와 존재의 윤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주로 자신의 자유를 긍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지칭한다는 것이다.[58]

쾌락의 활용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푸코가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성 혹은 성행위가 도덕적 배려의 영역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것이다. 성도덕에 관한 푸코의 고찰은 『성의 역사』 제2권에서 나타난 다음의 네 가지 개념에 의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1) 아프로디지아*(Aphrodisia)*

아프로디지아는 어떤 형태의 쾌락을 제공해 주는 행위, 몸짓, 접촉이다. 푸코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에게 아프로디지아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것이 부도덕하거나 타락의 시초라는 점이 아니라, 단지 그것은 능동적으로 향유하느냐, 아니면 그것의 수동적인 노예가 되느냐 하는 점이다. 결국 이것은 쾌락에 대한 능동적인 '절제'와 수동적인 '무절제'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아프로디지아에 있어서의 '과도함과 수동성'은 그리스의 남성들에게 있어 '부도덕'으로 인식되었다. 고대 그리스 사상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문제는 늘 과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프로디지아에 맞서 그것을 적절히 제어하고, 관리하는 일과 연관되어 다루어졌다는 것이 푸코의 주장이다.[59] 성적 활동이 도덕적 평가와 구분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이유는 성행위가 그 자체로 하나의 악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성적 활동이 어떤 힘, 그 자체로 과도함의 경향이 있는 에너지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쾌락과 욕망과 행위들의 이 같은 역동성을

57) 윤효녕 외, pp. 180-81.
58) 같은 책, p. 181. 재인용.
59) 미셸 푸코, 『성의 역사 2』, p. 64.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는 음식과 술과 사랑에서 쾌락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적절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60]

(2) 크레시스(Chresis)

고대 그리스에서 아프로디지아가 윤리적 존재론의 영역을 구성한다고 한다면, 크레시스는 윤리적 의무론의 영역을 구성한다. 크레시스는 한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위를 처분하고 관리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이 느끼는 욕망이나 그가 저지르는 행위들 중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배분하고 조절하는 방식에 있어 얼마만큼 신중하고 심사숙고하며 계산적이냐 하는 것이다.[61] 푸코는 쾌락의 활용에 대한 성찰은 욕구, 시간, 위상의 전략을 인식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① 욕구의 전략

영혼은 욕구가 손상 없이 충족될 수 있을 때만 신체에 쾌락을 인정한다. 그러나 욕구에 의해 조절된 아프로디지아의 활용 목적은 쾌락을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존속, 유지, 강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푸코는 다음과 같은 소크라테스의 진술을 상기시킨다. “배고픔, 목마름, 사랑의 욕망, 수면 등 우리가 이러한 욕구들을 가능한 한 최고로 기분 좋게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았을 때, 비로소 먹고 마시고 사랑을 하고 잠자고 쉬는 데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62]

그러나 욕망에 의해 쾌락을 유지하지만 그 반대의 논리가 성립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푸코의 주장이다. 즉 쾌락들이 욕망을 증폭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질서를 피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푸코는 다시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소크라테스를 인용한다. “유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말했던 욕구들을 이겨내게 해주는 절제는 또한 유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만한 쾌락을 느끼게 해준다”[63]

---

60) 같은 책, p. 69.
61) 같은 책, pp. 70-1. 참조.
62) 같은 책, p. 73.
63) 같은 책, pp. 75-6.

② 적절한 순간

이것은 쾌락을 활용하는 기술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까다로운 목표중 하나이다. 푸코에 의하면 이 '적절한 때'라는 테마는 그리스인들에게는 도덕적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문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플라톤은 『법률』에서는 이러한 적절한 순간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환기시키고 있다. "언제 그것을 해야 하고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는 행복하다. 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모르고서 그리고 바람직한 순간이 아닌 때에 행동하는 자는 아주 다른 삶을 갖는다"[64]

③ 개인의 위상

쾌락을 활용하는 기술은 그것을 활용하는 개인을 고려하여 그의 위상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성적 행동의 규칙들은 나이, 성별, 개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며, 그리고 의무와 금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과해지지 않아야 한다.[65] 푸코가 이 점을 특히 강조하는 것은 성과 일반 도덕의 차이를 변별해 내기 위해서다. 일반 도덕은 모든 금지와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성에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몇 가지 계율을 제외하고서 성규범은 언제나 당사자의 위상과 현존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66]

(3) 엔크라테이아*(Enkrateia)*와 소프로수네*(Sophrosune)*

엔크라테이아는 고대에서의 자기와의 관계, 쾌락에 필요한 도덕, 그리고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오랫동안 소프로수네와 아주 유사한 것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아주 가깝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동의어는 아니다. 푸코는 이 두 단어의 각기 조금씩 다른 자기와의 관계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소프로수네의 덕목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과 인간들에 대해 예의바르게 행동하도록, 다시 말해 절제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정의로우며 또한 용기있게 해주는 대단히 일반적인 상태 같은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엔크라테이아는 욕망과 쾌락의 영역에서 저항하거나 싸울 수

64) 같은 책, p. 72.
65) 같은 책, p. 78.
66) 송은희, p. 26. 참조.

있게 해주는, 그래서 그것의 지배를 확실히 하도록 해주는 자기 지배의 능동적 형태로 특징지워진다.[67]

푸코에 의하면, 쾌락에 대한 도덕적 성찰은 행위의 규약화나 주체의 해석학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도의 양식화와 존재의 미학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재의 미학이 고대 그리스인의 삶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양생술

양생술은 성행위가 개인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의 맥락에서 문제가 된다. 이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배려가 성적 활동의 가장 중요한 축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욕망을 가능한 한 물리적인 필요성 안으로 국한시키고 그 속에서만 조절, 보존하는 방도에 몰두하게 되는 것도 다 이러한 양생술이 보여주는 지혜들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결국 자유로운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자기를 절제하는 일상적 관계의 기술로서 양식화된다. 푸코에 따르면 양생술은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규칙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신체의 훌륭한 관리를 위한 일종의 전략적 기술이다. 즉 그것은 자신에 대해 모든 기록을 점검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하는 지침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의 기술이라 말할 수 있다. 결국 삶의 기술로서의 양생술의 실천은 질병을 피하거나, 그것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의 총체와는 다른 어떤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자신의 신체에 대해 필요한 적절하고 충분한 배려를 행하는 주체로 세우는 방식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68]

(2) 가정관리술

고대 그리스에서 가정 관리술은 '가정'과 '가족'을 의미하는 오이코스(oikos)를 다스리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 오이코스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가정의 의미 이상의 것이다. 푸코는 오이코스의 의미를 일반적 의미의 가정 이외에 '가장으로서의 한 남성이 소유하는 모든 것'이라고 본다. '집'이라는 장소를 기준으로 남성은 외부를 여성은 내부를 차지한다. 뚜렷이 구별되는 이 임무를 그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신들은

---

67) 미셸 푸코, 『성의 역사 2』, p. 83.
68) 같은 책, pp. 119-31. 참조.

각각의 성에게 특별한 자질을 부여했다. 또한 신은 그들에게 공통의 자질도 갖추게 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활동에서 그들은 기억력과 세심한 주의력을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부부는 각자 오이코스의 필요와 관련하여 정해진 성질과 활동 형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69]

여성의 미덕은 자신의 주인인 남편에 대한 '수동적인 순종의 윤리'인 반면 남성의 미덕은 자신과 타자를 다스리는 자로서 '능동적인 절도의 윤리'이다. 여기서 푸코는 가정 내에 구조화되어 있는 성역할의 불평등성에 주목한다.

>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창녀들의 위상이 그녀들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 자유를 제외하고는) 대단히 엄격한 구속에 따라야만 한다. 하지만 이 도덕은 여자들 용이 아니다. 여기서 환기되고, 정당화되거나 상술되는 것은 그녀들의 의무도 책임도 아니다. 그것은 남자들의 도덕이다. 남자들에 의해 생각되고 쓰여지고 가르쳐진, 그리고 분명 자유인인 남자들 용의 도덕, 요컨대 여자들은 대상으로서, 아니면 기껏해야 그녀들이 자기네 권력 하에 있을 때에는 양성하고 교육하고 보살펴 주어야 하고, 그 반면에 그녀들이 다른 사람(아버지, 남편, 후견인)의 권력 하에 있을 때는 삼가야 하는 파트너로 나타나고 있을 뿐인 남자의 도덕이다. 분명 이것은 이 같은 도덕적 성찰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들 중 하나이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에게 다 같이 유효한 규칙들의 영역과 행동의 장을 정의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남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행위에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성적 행위의 완성이다.[70]

남편과 부인 사이의 비대칭적 불평등 관계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자유 시민은 그 관계를 남용하지 않는다. 가정의 경영에서 남편이 결혼 관계에 성실해야 하는 이유는 도덕률에 충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기 제어의 가장 확실한 증명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부인하고만 성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자기 제어를 실현하는 가장 우아한 방식이라고 푸코는 말한다.[71]

(3) 연애술

푸코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일반화되었던 성인 남자와 소년간의 사랑에 주목한다. 푸코에 따르면 고대의 그리스에는 동성에 대한 사랑과 이성에 대한 사랑간에 배타적인 분리선이 그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오직 그 사랑이 잘 절제된 것이고 신중히

---

69) 같은 책, pp. 175-85. 참조.

70) 같은 책, p. 38.

71) 윤효녕 외, p. 182.

선택된 실천인가 하는 점이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유인이면서도 자신의 쾌락에 수동적으로 자신을 내맡기는 행위였다.[72]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아름다운 존재'였다. 아름다운 존재에 대한 욕망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로 인정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들 사이에서 성적 쾌락과 결부된 아름다운 '소년의 신체'에 대해 예찬하는 일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러한 사랑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전환시키느냐가 그들의 관심사였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변적인 요소, 즉 남성의 변덕이나 소년의 성숙 등에 의해 사라지게 될 둘 사이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이면서도 지속적 사랑의 형태인 '필리아(philia)'로 전환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필리아로 전환된 사랑은 도덕적으로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도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73] 이 점에서 연애술은 오직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기반한 성인 남성의 자발적인 절도와 자제만이 문제시되었던 양생술이나 가정관리술과는 다르다. 연애술은 복수의 남성을 전제로 하며 쌍방의 자기 제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자유인의 성적 행위의 핵심은 "자기 지배"에 대한 지향성으로 규정된다.[74]

푸코는 성행위가 그리스 사상에서 아프로디지아의 형태 하에, 도덕적 실천의 영역으로서, 다스리기 힘든 힘들의 투쟁영역에 속하는 쾌락의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행위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양식을 가지기 위해 절도와 시기, 횟수와 호기의 전략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전략은 주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 자기 자신보다 더 강한 엄정한 자제력을 지향한다. 이러한 성적 엄격함은 개인을 도덕적 행동의 주체로서 성립하게 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양식의 완성으로서 이해된 '윤리의 역사'인 것이다.[75]

2) 자신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배려

푸코의 윤리적 주체 형성 과정에 있어 마지막 관심사는 '자기에의 배려'이다. 여기

---

72) 미셸 푸코, 『성의 역사 2』, p. 215.
73) 같은 책, p. 231.
74) 윤효녕 외, p. 183.
75) 미셸 푸코, 『성의 역사 2』, pp. 282-83. 참조.

에서 '배려'란 과다(過多)에 대한 배려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gnothi sauton)'를 요구하지만 푸코는 관심사는 '너 자신을 배려하라(epimelésthai sautou)'이다. 이 말은 과다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배려의 의미를 지닌다. 기원후 1, 2세기에 과다는 신체와 마음에 해롭다는 생각 때문에 쾌락을 멀리했다. 따라서 결혼과 부부생활은 높이 평가되었고, 소년애는 가치를 잃어갔다. 성적 활동에 관한 도덕적 규약은 없었지만 자제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었고 엄격해졌다.[76]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를 강화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자기 연마"[77]라고 부를 수 있다.

> 이러한 자기 연마는 삶의 기술(technē tou biou) — 다양한 형태를 띤 — 이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로 간략히 특징지어진다. 즉, 자기 연마를 필수적인 것으로 정당화하고 그 발전을 요구하며 실천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 배려의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전념해야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 문화에서는 사실상 매우 오래된 주제라는 점이다.[78]

자기에 대한 관심(l'epimeleia heautou. la cura sui)은 많은 철학적 교의에서 재발견되는 하나의 명령이다. 에피쿠로스(Epikouros)가 철학자들에게 보내는 《메네세에게 보내는 편지》는 철학이 자기에 대한 관심의 부단한 실천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책이다.

> 그 누구도 젊다고 해서 철학하는데 지체하지 말고, 늙었다고 해서 철학에 싫증을 내지 말라. 사실 그 누구에게도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79]

세네카(Seneca)가 쓴 편지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한다는 에피쿠로스 철학의 주제를 찾아 볼 수 있다.

> 청명한 하늘은 깨끗해져서 그 무엇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을 빛을 꿈꿀 때 가장 강렬한 빛을 띠듯이, 몸과 마음으로 행복의 씨실을 짜기 위해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돌보는 사람(hominis

76) 이광래, p. 284. 참조.
77) 미셸 푸코, 『성의 역사 3』, p. 59.
78) 같은 책, p. 60.
79) 같은 책, p. 62. 재인용.

corpus animumque curantis)은 영혼에 아무런 동요가 없고 육체에 아무런 고통이 없을 때 완벽한 상태가 되며, 또한 욕망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80]

자신의 영혼을 보살핀다는 것은 제논(Zenon)이 자기 제자들에게 주었던 계율이며, 1세기에 무소니우스(Musonius)가 반복하게 될 계율이다. 이러한 계율은 세네카에 이르러 자기 자신에 대한 전념이라는 주제로 확장된다. 세네카는 자기에게 몰두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에 몰두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을 비워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 때 '비움'의 의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을 형성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며",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다양한 활동이다. 세네카는 자기를 배려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다양한 형태와 자기 자신을 다시 일치하고자할 때의 초조함을 가리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어휘들을 열거한다.

자기를 형성하다(se properare),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다(sibi vindicare), 자기를 만들어내다(se facere), 공부에 파묻히다(se ad studia revocare), 자기에게 전념하다(sibi applicare), 자기에게 몸을 바치다(suum fieri), 자기 속에 웅크리고 있다(in se recedere), 자기에게 돌아오다(ad se recurrere), 자기 자신에게 머무르다(secum morari)[81]

이 주제는 에픽테투스(Epictetus)가 내린 인간의 정의에도 잘 나타나 있다. 《대화》에서 인간 존재는 자기 배려를 위임받는 존재로 정의된다. 인간과 다른 생물체들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동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연이 동물들을 우리들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김으로써 동물들이 스스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우리들 자신이 그들을 돌보아야 할 필요를 없애도록 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했는데, 그것은 결코 신이 인간을 결핍한 상황 속으로 밀어 넣고 인간을 동물보다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신은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했다. 에픽테투스에게 자기 배려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든 관심의 대상으로 삼도록 강요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는 하나의 특권이자 의무이며, 하나의 선물이자 구속이다.[82]

---

80) 같은 책, p. 63. 재인용.

81) 같은 책, pp. 63-4. 재인용.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에는 결혼과 부부관계가 새롭게 중요해진다. 헬레니즘 사회에서 결혼은 공적 영역 안에 포함된다. 결혼은 가족의 권위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지만 또한 상대적으로 제한 받는다는 역설적 결과와 함께 가족의 틀을 넘어서게 된다. 클로드 바탱(Cl. Vatin)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결혼이 가족제도의 틀을 벗어난 것은 명백하며, 아마도 고대의 사적 결혼의 잔재인 알렉산드리아의 교회 결혼식 역시 일종의 공민제도였음이 분명하다. 공무원에 의해 행해지건 사제에 의해 행해지건 간에 결혼을 승인하는 것은 항상 도시국가 전체이다."[83]

결혼이 이처럼 공공화 되는 현상은 결혼이 결과인 동시에 수단이며 매개물임을 의미한다.

> 고대적 형식 속에서 결혼은 사적 행위이면서도, 어떤 법적 효력이나 아니면 적어도 신분의 효력을 지니는 한에서만 이로운 것이었고 그 존재이유를 지닐 수 있었다. 이름 물려주기, 후계자 형성, 협력체제 구성, 재산 병합이 바로 그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영역에서 전략을 발휘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었다. 반대로 결혼은 가산을 가족의 다른 구성원이나 친구 아들에게 물려주기보다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사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영속화하고자 하는 신분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84]

결혼한다는 것은 개인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결혼을 지배하던 정치·경제적 요구가 특권계급 내에서 지위와 재산이 단지 가족 집단들 간의 협력관계보다 군주와의 친분관계나 군인 혹은 민간인으로서의 '경력', '사업'에서의 성공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된다. 결혼은 배우자간의 자발적인 합의에로 발전한다. 클로드 바탱은 "쌍방 동의에 의한 결혼의 법제화는 부부 공동체가 존재하며, 부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실은 그 구성요소들, 즉 배우자 각각의 가치보다 우월한 가치를 갖는다는 생각을 낳게 한다"[85]라고 말한다.

로마에서도 결혼은 우선적으로 각자의 역할 수행을 중시했다. 벤느(P. Veyne)는 아래와 같이 결혼을 파악한다.

---

82) 같은 책, pp. 64-5. 참조.
83) 같은 책, p. 93.
84) 같은 책, p. 94.
85) 같은 책, p. 97.

공화정하에서 각각의 배우자는 행해야 할 일정한 역할을 지니고 있었고, 일단 이러한 역할이 완수되기만 하면 부부간의 애정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가능했다. 제정하에서는 결혼의 기능 자체가 상호 이해, 그리고 애정의 법칙에 근거를 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안주인과 바깥주인으로 구성된 한 쌍의 부부라는 개념이다.[86]

이것은 성행위에 있어 정상적인 부부생활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의 전성기에는 세속적인 사랑과 고상한 사랑의 이원론적 성애론이 일원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양성연애에 대한 비난이 격렬해졌다.

앞장에서 논의했던 쾌락의 세 가지 활용 영역(양생술, 가정 경영술, 연애술)은 『자기에의 배려』에서 각각 '육체, 아내, 소년들'에 관한 서술로 이어진다. '육체'의 장에서는 성 행위와 결부된 자기에의 배려가 의학적 관심과 접목되면서 질병에 대한 불안이 급격하게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행위가 육체와 영혼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주목되면서 성적 금욕이 그리스 문화에서보다 고대 로마 시대에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아내'에서는 결혼 생활과 결부된 제약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분석된다. 가정 내에서의 남편과 부인 사이의 관계는 표준적인 성행위로 정착하게 되고, 그 결과 '소년들'에서는 소년과의 동성애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차츰 인식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들 사이의 쾌락 관계를 통합시키는 결혼이 도덕적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과 비례해서, 소년에 대한 동성애는 사랑의 최고 형태를 구현하기는커녕 극단적인 부적절성 때문에 비판 받게 된다.

결혼에서는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는 사랑의 유일한 고리가 적어도 소년들과의 관계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비록 소년들과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치들을 지닌 채 사랑의 일반적 개념의 지주이자 모델의 구실을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자격을 박탈당하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부의 사랑에 비교할 때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의 관계 속에서는 성관계들이 폭력에 의해 부과되고, 그 관계들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은 분노, 증오, 복수의 욕망 밖에는 느낄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나약함, 여성성 때문에 그를 가장 낮은 지위로 깎아내리는 수치스럽고 반자연적인 일인 수동적이 되는 것에서 쾌락을 얻는 사람들만이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강요당하면 증오를 느끼게 되고 동의하면 멸시를 불러일으킨다는 '사랑받는 자의 딜레마'를 되풀이하고 있다.[87]

---

86) 같은 책, pp. 97-8.

『자기에의 배려』에서 논의되는 1세기나 2세기의 도덕적 분위기는 쾌락을 인정하지 않고, 무절제가 육체와 정신에 해롭다는 것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이 시대는 결혼과 부부관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더 이상 동성연애와 같은 관계에 과거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도덕적 규범이 강화되어서가 아니라 절제의 미덕과 같은 자기 제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엄격성의 태도가 존중되었다.[88]

> 기원후 초기 두 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성적 활동과 성적 쾌락에 대한 모든 성찰은 엄격함의 주제들이 어느 정도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의사들은 성행위의 결과들을 걱정하고 그 행위를 삼가도록 기꺼이 권고했으며,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처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고 공언했다. 철학자들은 혼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관계들을 비난하고, 부부가 서로에 대한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정절을 지킬 것을 명령했다. 결국 소년애를 이론적으로 평가절하 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 같다.[89]

푸코는 성적 행동들이 주는 쾌락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과 관계하는 존재로서 구성할 수 있게 해 주는가를 밝혀내는 작업을 수행하려 한다. 쾌락의 활용이라는 자기 배려는 결국 도야의 문제라는 것이 푸코의 결론이다. 여기서 '도야'란 스스로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지칭한다. 기존의 주제들의 이러한 변모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배려에 의해 지배되는 삶의 기술이 발전함을 볼 수 있다. 성도덕의 변모는 금지의 형태들이 강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종속성 및 독립성, 자신의 보편적 형태, 그리고 그가 타인들과 수립할 수 있고 또 수립해야 하는 관계, 그가 자신의 통제력을 자기 자신에게 행사하는 절차들, 그가 자신에 대해 완전한 지배를 수립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문제 주위를 선회하는 하나의 삶의 기술이 발전된 결과이다.[90]

우리는 오늘날, 보편적 도덕규범의 급격한 해체를 겪고 있다. 푸코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천적 태도는 "새로운 형태의 주체를 장려"하는 작업이라고 역설한다. 물론 푸코가 현대의 혼란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대 그리스의 역동적 윤리를 무비판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성적 실천에 있어 능동적 행위자로서의 주체의 형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개인적 윤리의 대상으로서의 주체의 형

87) 같은 책, pp. 233-34.
88) 오생근, p. 73.
89) 미셸 푸코, 『성의 역사 3』, p. 265.
90) 같은 책, pp. 268-69.

성을 위한 생존의 기법과 자아의 기술이야말로 그의 마지막 철학적 주제인 것이다. 레이몽 벨루(Raymond Bellour)에 의하면 “성에 대한 수많은 금기가 사라져 버린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주체로서 다시 정의할 것인가”라는 것이다.[91]

91) 이광래, pp. 293-94. 재인용.

Ⅳ. 현대 사회와 성(性)

1. 현대사회의 성담론

프랑스의 철학자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자본주의의 소비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호는 신체[92]라고 말한다. 소비사회에서 육체는 사유재산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 개인은 자기의 육체를 재산으로 관리하고 조작하기도 하며 투자를 극대화한다. 또한 육체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의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호이기 때문에 자기도취의 숭배대상이 된다. 소비사회에서 자기의 신체에 대한 나르시시즘은 만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자기의 신체에 나르시시즘을 느끼지 않았으며, 노동과정 및 자연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주술적이고 도구적인 육체관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 구조의 현대 사회에서는 신체를 자본과 소비대상으로 취급한다. 서구 사회에서 신체는 개인의 자아 정체성의 일부로서 수행되어야 하고 완성되어야 할 일종의 프로젝트로 간주된다.[93]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여성들은 마르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도록 사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강요받는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소비의 기호로서 나르시시즘의 대상이 된 여성의 신체는 이윤추구의 대상이 된다. 소비사회에서 나체는 많은 고객을 얻기 위한 이 시대 최고의 수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94] 이처럼 신체는 투자되고 소비의 대상으로서 물신숭배 되고 있다.

이는 TV 광고를 통해 잘 드러난다. 소비의 미학인 광고 문구는 상업주의의 전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성에 대한 환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긴다. 옷이 성적 만족을 약속하고 향수가 곧 자기만족을 보장하며 청량음료가 사랑과 인기의 열쇠로 둔갑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신체에 성을 부여하고 이것을 통해 개개인을

---

92)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이상률 옮김, (문예, 1994), p. 189.
육체, 신체, 몸은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약간씩 다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 글의 흐름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겠다.

93) 크리스 쉴링, 『몸의 사회학』, 임인숙 옮김, (나남, 1999), p. 24. 참조.

94) 양해림, “푸코의 남성주체에 관한 몸과 성의 담론 : 『性의 역사』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31집, (2003), p. 150. 참조.

통제하려는 권력의 전략은 소비사회에도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성 역시 권력의 미세한 그물망에 걸려 사회적으로 담론화 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사회관계는 상품화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성의 자유를 부추기는 잠재적 요소가 자본주의 사회에 애초부터 내재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성장함에 따라 성은 권력의 전략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관계 조직 양식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동시에 상품 경제의 주요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성적 이미지는 시장의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거대한 판매 전략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표현의 남용, 문학작품에서의 외설 시비는 성 담론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는 성의 상품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성은 소비사회의 제1면에 등장하게 되며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소비되는 것 모두 노골적인 성적 색채를 지니게 된다.

이렇듯 현대 문화는 성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은 쾌락을 낳게 되고, 쾌락은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 마케팅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성은 소비주의와 쾌락주의를 조장한다. 그렇다면 왜 성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섹스 중독(sex addiction)이라는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 사회에서 성의 중심성은 오늘날 성적 행위가 갖는 강박적 성격으로 드러나고 그러한 강박성은 포르노그라피, 외설 잡지나 영화 등의 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중독,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성적 경험을 추구하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95] 성을 억압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기든스는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 이러한 상황의 근원은 모성(motherhood)이 만들어지고 또한 모성이 여성적 영역의 기본 요소가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로서, 섹슈얼리티는 격리되거나 혹은 사사화(私事化)된 것이다. 섹슈얼리티의 격리는 전반적으로 심리적 억압보다는 사회적 억압의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다음의 두 가지와 연관되어 있다. 여성의 성적 감응성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은 양성간의 오래된 분리, 특히 순수한 여성과 순수하지 못한 여성을 나누는 이분법의 재판(再版)이었지만, 또한 그것을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 위치시켰다. 섹슈얼리티가 재생산으로부터 멀어지고, 새롭게 부상하는 자아의 성찰적 기획 속으로 통합되면 될수록 이러한 억압적 제도 체계는 긴장에 빠지게 되었다.[96]

95)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옮김, (새물결, 1999), p. 278.

성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었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다르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의사소통과 자기발전의 매개체로 만드는 것이 관건이 된다. 여성들이 성적 쾌락을 친밀성[97]의 영역에서 재구성하는데 반해, 남성들은 그러한 변화에서 고립됨으로써 그들의 성적 행동은 강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적 급진주의자들이 주장했듯이 성은 근본적인 정치 투쟁의 영역이며 해방의 매개체이다. 비억압적인 사회는 성이 강박성으로부터 해방된 사회일 것이다. 따라서 조형적 섹슈얼리티(plastic sexuality)[98] 안에서 자율적인 행동이 가능할 때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해방은 사회적 삶을 광범위하게 정서적으로 재조직하는 매개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해방이란 성급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심리적 성향이나 행동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적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제 성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의 민주화는 우정관계, 부모와 자녀, 그리고 친족간의 관계로 확장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99]

이러한 사적 영역의 민주화가 오늘날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 생활의 민주화는 남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자율성은 개인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 판단, 선택,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실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서는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사회활동의 조건을 가장 잘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관심사였다. 개인은 자율성을 지향하고 그러한 열망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 개인은 자신의 삶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 즉, 개인은 그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한 제한하는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평등한 권리(그리고, 따라서 동등한 의무)를 누려야 한다.[100]

---

96) 같은 책, p. 279.

97) 친밀성은 타자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의 특성을 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같은 책, p. 166.

98) 기든스에 의하면 조형적 섹슈얼리티는 재생산의 필요로부터 해방된 탈중심화된 섹슈얼리티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성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99) 같은 책, p. 284.

100) 같은 책, p. 293. 재인용.

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자기 발전의 권리만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법적 제한도 함축하고 있다. 자율성의 원칙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권리란 본질적으로 권력을 부여하는 형식이며, 능력을 갖게 하는 도구이다. 의무는 권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규정한다.[101]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든다는 의심은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자율성의 원칙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장려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없는 재산이나 권리에 의해 규정되는 특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민주적 질서는 개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그렇듯이 이상과 현실 간의 거리는 있는 법이다. 특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는 심각한 긴장이 늘 존재한다. 경제적인 차이나 심리적인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율성 원칙은 가장 중요한 실질적 구성요소이다. 개인 생활의 영역에서 자율성이란 곧 자아의 성찰적 기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 즉 타인과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율적 개인은 타인을 똑같은 자율적 개인으로 대우할 수 있으며, 또한 각자의 잠재성 계발이 결코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율성은 또한 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적인 경계선을 마련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경계선은 침범되기도 한다. 폭력적이고 상대방을 학대하는 경우인데, 주로 성적 영역과 성인과 어린이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난다. 대부분 남성들은 자신들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또는 말로 학대하기도 한다. 대인관계에서 권력의 평등을 확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감정적 학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102]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이성 관계 속에서 특히 여성의 성은 불완전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기든스는 푸코의 자아에 대한 해석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 고도로 성찰적인 사회의 근본적인 특징들은 바로 자기 정체성의 '개방적' 성격과 신체의 성찰성이다. 기존의 성역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는 여성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 베티 프리단이 '이름없는 문제'라고 명명했던 질문 - 은 매우 강렬하게 부각된다. 지배적인 이성애적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남녀 동성애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성적 정체

101) 같은 책, p. 295.
102) 같은 책, p. 297.

성에 관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 자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성찰적 기획 곧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지속적인 심문이 되었다[103]

기든스는 성의 역사에 관해 푸코와는 다른 견해를 지닌다. 그는 가정의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어린아이들은 취약한 위치에 놓일 것이며, 그 결과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파악한다.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은 새로운 가족 상황의 핵심이다. 기든스는 낭만적 사랑을 본질적으로 여성화된 사랑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친밀성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았다. 즉, 여성은 친밀성 영역의 확장과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다.[104]

권력은 쾌락을 생산하는 도구이며 쾌락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에로틱한 쾌락은 정상적인 성을 병리적인 것과 구분하는 문헌, 지침서, 그리고 조사연구들을 생산해 냄으로서 비로소 '성'이 된다. 정상적인 성행위를 계도하려 했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빅토리아 시대의 '고해'였다고 푸코는 말한다. 그러나 오히려 고해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담론을 만들어냈고, 은밀했던 성에 관한 표상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기든스는 푸코가 성차(gender)를 다루지 않으면서 섹슈얼리티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푸코는 가족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현상인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이 섹슈얼리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고찰했듯이, 푸코는 빅토리아 시대에 정상적인 성을 구분해 내려고 만들었던 '고해'가 오히려 담론을 생산해 내서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성담론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든스는 단지 그것만이 현재의 성을 설명할 순 없다고 한다. 푸코가 간과한 것은 낭만적 사랑의 개념의 확산이다. 낭만적 사랑이라는 이상이 확산됨으로써 혼인관계가 보다 폭넓은 친족관계로부터 분리되고 결혼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대가족제도가 핵가족화 되면서 대다수 여성들의 경우 처음으로 섹슈얼리티가 임신과 출산의 뿌리 깊은 고리로부터 분리 될 수 있었다. 이는 역사적인 해방을 의미한다. 섹슈얼리티는 재생산에서 벗어남으로써 성의 전진적 분화의 일부가 되었다. 임신은 인공적으로 막을 수도, 생산할 수도 있었으며 마침내 자율적인 것이 되었다. 이로서 성은 해방되어 마침내 개인 상호간 교섭의 성질이 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시대에 걸쳐 대다수 여성들에게 출산은 높은 사망률로 인해 죽음의 공포와 맞

103) 앤소니 기든스, p. 69.

104) 케니스 H. 터커, 『앤서니 기든스와 현대사회이론』, 김용규·박형신 옮김, 일신사, 1999. p. 322. 참조.

닿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에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여성의 성은 상당부분 해방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육아는 여전히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낭만적 사랑의 대두,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공포로부터의 벗어남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해방시킨 것은 크게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육아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는 한, 진정으로 조형가능하고 교섭 가능한 성은 아직 먼 이야기인 것이다.[105]

그동안 은밀하고 사적인 소통구조 속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성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서도 날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개인의 성에 대한 학문적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성에 대한 교양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성은 음담패설이나 삼류 잡지에서나 취급하던 대상에서 현대 사회의 중심적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성담론이 진정한 개인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가십거리나 선정적인 화제거리로 머물고 있다. 한 쪽에서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다른 한 쪽에서는 이러한 관심 자체를 부도덕하고 타락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태도가 아직도 남아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담론은 닫혀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106]

2. 성의 주체로서의 여성

소비의 영역에서 성의 전략이 여성의 신체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여성의 상품화와 기능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다음과 같이 성이 상품화, 대상화가 되면서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상품화, 대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아름다움과 에로티시즘은 불가분(不可分)의 개념이며, 그 둘이서 인간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아름다움은 여성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며 종교적이라고도 할 만한 지상명령이 되었다. 아름다움의 윤리라는 것은 육체의 모든 구체적 가치, 즉 에너지적, 동작적, 성적 사용가치를 유일한 기능적 교환가치로 환원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아름다워지세요'라고 하는 명령법은 기능적 명령법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성의 육체는 광고가 전달하는 무성(無性)의 기능적인 일련의 사물들과 동류적(同類的)인 사물이 된다.[107]

105) 앤소니 기든스, pp. 55-74. 참조.
106) 같은 책, p. 6. 참조.

역사적으로, 서구 문화에서 여성은 성적 특징을 지닌 신체와 동일시되어 왔다.[108] 여성다움이라는 이상을 통해 서구 문화는 신체에 성과 성적 충동(libido)을 부여한 것이다. 여성의 신체가 바로 여성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회적 이상에 순응하도록 다듬어졌다. 이것은 권력-지식관계의 표현이다. 이러한 여성다움, 즉 여성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조건 자체보다는 여성의 신체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주어지는 규정이나 기대를 의미하며, 여성을 억압하는 요소이다. 보봐르(Simone de Beauvoir)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성인 여성과 남성(female & male)으로 태어났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인 여성과 남성(woman & man)[109]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동작이나 자세, 움직임이나 처신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확연하다. 전철 안에서 여성들은 팔을 몸에 밀착시키고 손을 무릎에 포개 놓은 채,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다소곳이 앉아 있다. 여성들이 가능한 한 적은 공간을 차지함에 비해 남성들은 두 다리를 마음껏 벌리고 앉거나 양팔을 들거나 뻗쳐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앉아있다. 결혼사진 속에서 여성들의 시선은 아래쪽을 향해 있고 살며시 미소 짓고 있으나 남성들은 정면을 바라보면서 활짝 웃고 있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 인정과 처벌을 통해 각인되는 몸가짐의 규칙, 어떤 것이 소녀, 혹은 여인에게 자연스러운 태도, 시선인지에 대한 특정한 정의를 통해서 성차별적인 개인이 형성된다. 학문적인, 의학적인, 법적인 담화는 이러한 여성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이에 자연스러움을 부여한다.

분명 우리 사회는 남성과 다른 것을 여성에게 기대한다. 여성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아름답고 섹시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은 관심이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존경이나 사회적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율을 훈련시키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역사적으로 규율의 실재에 책임이 있는 것은 법률이었다. 부모들과 선생님들 또한 조신한 여성성을 강요했다. 또한 대중매체도 한 몫 한 것은 말한 나위없다. 그러나 이들 누구도 여성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권위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아니었다.

---

107) 장 보드리야르, pp. 195-200. 참조.

108) 라마자노글루 외, 『푸코와 페미니즘』, 최영 외 옮김, (동문선, 1998), p. 123.

109) 미셸 푸코 외,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황정미 옮김, (새물결, 1995). p. 238.

여성의 신체에 여성성을 부여하는 규율적 권력은 가정, 학교, 교회, 일터, 거리의 광고물, 신문, TV, 라디오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 규율가이고 그래서 딱히 누구를 꼬집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푸코가 지적하는 또 하나의 권력의 기술이다. 이러한 규율적 권력의 익명성, 이의 광범위한 확산은 여성의 종속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여성성의 생산이 자발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행사되는 권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관성이 체계적으로 기만적인 관행을 통해서 구성됨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110]

우리는 푸코가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미세한 권력, 그리고 지식과 연결되어 담화를 생산하는 권력을 분석해 보여줌으로써 권력이 인간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권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을 살펴보았다. 권력에 대한 푸코의 분석은 성의 차이를 공고화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며, 여성을 지식의 대상으로 만드는 규율적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묻게 함으로써 여성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푸코가 지적한 권력의 편재성은 여성의 억압에 대한 관심과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왜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있으며, 여성의 지위가 왜 그렇게 더디게 향상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또한 권력의 편재성은 그물망으로서의 권력을 분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을 극복하는데 한 몫을 했다.

푸코의 권력 이론은 남성의 성적 권력이 어디서 유래하는지에 대해서나, 남성의 성적 권력이 왜 그토록 강력하게 강화되고 제도화되며 재생산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일을 등한시한다. 그러나 푸코는 권력의 유형들 간의 격차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111]

우리는 성 영역에서의 실천이라는 전체 영역이 사회적으로 남성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와 쾌락이 가능할 수 있지만 오직 불안한 형태로만, 그리고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푸코는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난공불락의 남성 권력이 여성에게 문젯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남성들, 남성성, 그리고 여성 신체의 사회적 구성에 의해 매일 예속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정치적 경험은 저항과

110) 김정란, 「푸코 권력이론의 여성해방적 함의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p. 31-3. 참조.

111) 라마자노글루 외, p. 305.

변화를 푸코가 허용한 것으로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야기 시키는 영역으로 만들고 있다. 푸코는 우리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잠재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 조심스럽게 여성적 자기를 형성해 가면서 성에 있어 남성적 지배를 지지하는 젊은 여성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러나 푸코는 우리에게 남성 권력의 결속이라는 거대한 것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했다.[112]

지금까지 자신들의 몸이 단지 본능의 힘이었고, 자연의 거친 산물이며, 생식의 기관인 줄만 알았던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사회와 문화의 구성이고, 공적인 것이며, 오랫동안 정치 사회적 담론의 산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1960-1970년대 서구에서 소위 페미니즘의 제2물결이 일어나고 거세지면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성이 젠더(gender)임을 자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몸이 긴 세월동안 가부장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에 의해서 왜곡되어 왔음을 깨닫고, 이데올로기적 왜곡만 제거한다면 자신들과 남성들이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113]

1990년대 이후, 그동안 성에 관한 무지와 순결을 강요당했던 여성의 성에 대한 담론이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공중파 텔레비전에서도 성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성은 더 이상 은밀한 곳에서 남성들만이 전유하는 대상이 아니다. 여성 스스로 여성의 쾌락에 대해 말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주체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중매체는 대중의 호응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대중매체는 과거에 억압되고 금기시되었던 성에 대한 욕망을 여러 분야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광고에서 성은 모든 상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이러한 섹스어필의 광고는 여성의 몸을 통해서 재현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여성의 몸을 입술, 눈, 다리 등 파편화된 대상으로 분리해 놓고 각 부위에 성적 의미를 극대화하여 상품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대중매체는 성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연예인의 사생활이 담긴 비디오가 유출되고 이를 대중매체에서 선정적인 기사거리로 다루고 전통적인 성윤리로 그 연예인을 사회로부터 퇴출시켰던 사건[114]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매체가 성이 노출되는 시대와 상반되게 여성의 정조 관념은 은밀하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중매체

112) 같은 책, pp. 311-12.
113) 이은선, 「유교와 페미니즘, 그 관계맺음의 해석학」, 『유교와 페미니즘』, (철학과 현실, 2001), p. 96.
114) 동아일보 사회면, 2000년 11월 29일자 신문.

가 성을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매체를 누가 장악했느냐에 따라 여성들은 더욱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힘에 시달린다는 점을 통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남성의 성은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남성성이 낳은 결과이다. 현대 사회 속의 남성성은 남성의 성적 강박성의 전형적 형태로 볼 수 있다. 많은 남성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들에게 결여된 것을 찾아 나서게 되며, 이 결여는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남성들의 '느낌을 표현할 능력이 없다'거나 '자신의 감정을 다룰 수 없다'라는 말들은 자신을 민주화하고 재질서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과 같다.[115] 기든스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여성에 비해 남성들은 성적으로 불안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성들은 또한 안정되고 통합된 지향을 찾게 해 주는 삶의 여러 부분들로부터 자기의 성적 활동을 구획지어 버리기도 한다.[116]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성이 남성에 의해 통제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통제가 깨질 때 남성들의 성을 향한 충동의 강박적 성격은 더욱 더 커지게 되었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더욱 증가했다. 여성이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117]의 윤리를 창출하려 할수록 남성의 감정적 의존은 더욱 더 지탱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여성들이 원하는 성은 인격과 감정이 손상되지 않는 상호존중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아직도 젊은 여성들은 여전히 강간당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할 수도 있고, 월급을 남성보다 덜 받을 수 있으며, 성적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118] 이러한 점에서 푸코는 페미니즘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하지만 상호존중적인 행위, 즉 친밀성에 의해 여성과 남성의 민주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정치 영역의 민주주의에서는 규약의 제정과 정책 쟁점에 대해 공개적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이성애 관계에서는 결혼 계약이 권리 증서이며, 이 계약은 결혼관

---

115) 앤소니 기든스, p. 198. 참조.

116) 같은 책, p. 199. 재인용.

117) 합류적 사랑이란 기든스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타자에게 열어 보이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정체성을 인정하고 사랑의 유대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합류적 사랑이다.

118) 라마자노글루 외, p. 310.

계의 특성(분리됐지만 불평등한)을 필연적으로 공식화시킨다. 기든스는 여성들이 더 만족스런 이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조언하는 규약집[119]을 소개한다. 물론 이러한 규약집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행동과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정당화에 대해 성찰적 자세를 가진다면, 이성간의 민주적 관계에 한 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19) 앤소니 기든스, pp. 301-2. 참조.

Ⅴ. 맺음말

지금까지 푸코의 주체 개념을 『성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말과 사물』을 통해 새로운 인문과학의 등장을 고찰했다. 푸코는 중국의 한 백과사전의 동물의 분류 방식[120]을 통해 인식틀에 따라서 대상을 사유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 시대의 담론을 보이지 않게 지배하는 규칙성에 주목한다. 푸코는 한 시기 사람들의 인식을 특정한 형태로 질서지우고, 사고방식을 동일한 형태로 방향지우는 특정한 인식 조건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푸코는 르네상스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 그리고 근대를 구분하고 각각의 에피스테메를 논의한다. 18세기와 19세기에 모든 앎을 가능하게 했던 신이 확고한 중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앎의 근원은 인간이 된 것이다. 하지만 니체가 신의 죽음을 예언했듯 푸코는 인간의 죽음을 예언한다. 인간은 최근의 발명품이며, 이제 곧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푸코는 근대의 산물인 개인들의 주체에 주목한다. 그는 전통적인 인간 중심주의에 철저히 반대하면서도 주체형성의 철학적 문제 설정의 해명에 전념한다. 그는 개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질서의 틀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강제하고 길들이는 조건을 통해서 그들을 특정한 형태의 주체로 변형시키는 방식을 연구하고, 이것을 '존재의 미학'이라고 명명한다.

그는 『성의 역사』에서 주체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한다. 초기 저서『말과 사물』에서 근대의 인간들이 지식의 대상이 되고, 인간이 구성되는 방식을 강조한다면 『성의 역사』2, 3권에서는 인간이 자신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는 곧, 주체를 권력과 지식의 산물로 보던 태도에서 욕망의 주체로 인식하는 태도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푸코는 먼저 빅토리아 시대의 성을 계보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억압의 가설을 반박한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마치 성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또는 사람에게는 육체가 없다는 듯이 내숭을 떨었다고 그는 표현하고 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가 제약을 받았다는 것은 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가 주장하고 싶은 것

120) (a)황제에게 속하는 동물 (b)향료로 보존된 동물 (c)사육동물 (d)젖을 빠는 돼지 (e)인어 (f)전설상의 동물 (g)길을 잃은 동물 (h)현재의 분류에 포함되는 동물 (i)광폭한 동물 (j)셀 수 없는 동물 (k)낙타털과 같은 미세한 붓으로 그릴 수 있는 동물 (l)기타 (m)물주전자를 깨뜨리는 동물(o)멀리서 볼 때 파리같이 보이는 동물. 미셸 푸코(1997), p. 11.

은 성에 대한 담론이 그 당시에 무한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갑자기 성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학교, 군 막사, 감옥, 병원, 정신병원 등의 기관에서 세심한 규칙의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담론들은 성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성에 대한 정의와 그 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서구 문명의 주요 과정 중의 하나였다. 그는 이것을 성과학이라고 불렀다. 푸코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성과학은 권력의 한 형식으로 발전되었다.

환자에 대한 집요한 조사와 상세한 부분까지 남김없이 고백하도록 환자를 다그치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한 방법이 되었으며, 비밀을 캐내는 것과 비밀을 움켜쥐고 있는 것에 똑같이 은밀한 쾌락을 느꼈다. 정신과 의사와 환자, 선생과 학생, 부모와 아이들, 신부와 고해성사를 하는 신도 사이에 권력이 끼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 체계가 모든 곳에 같은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성과학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중국, 일본, 인도, 로마, 그리고 회교의 아랍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 즉 사랑의 기술(ars erotica)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푸코는 이처럼 서구 문명이 엄청난 성담론을 증가시켰다고 본다. 성담론은 오히려 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작용하며, 권력은 성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성담론의 생산을 통해 유지, 확장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은 도덕적 문제로 구성되고, 개인을 도덕적 주체로 성립시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양식의 완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기완성은 '양생술, 가정의 경영, 연애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 구체화된다. 성행위를 통한 도덕적 주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성적 과다도, 성적 무감각도 아닌 중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행위에 대한 자기 제어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영역들은 각각 육체, 아내, 소년들에 관한 서술로 이어지며, 자기에의 배려는 더욱 더 엄격한 도덕 체계에 편입된다.

진정한 쾌락은 자연과 보편적 이성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어야 하고, 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주체와 주체로서의 자기 형성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푸코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기주의적인 자기애에 갇히거나 성적 욕망에 맹목적으로 노출된 현대인에게 '좋고, 아름답고, 명예롭고, 훌륭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윤리적 이상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를 반성하게 한다. 그는 성을 주제로 한 주체의 회복과 그 회복을 향한 새로운 투쟁방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서구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는 성 전략의 장(場)이었다. 여성은 남성중심의 성의 역사에서 항상 억압받아 왔다. 푸코는 성의 변화된 주체의 모습 속에서 남성

들은 자율적이고 자기배려적인 것에 비해서, 여성들은 자율적으로 살 수 없었던 역사를 계보학적으로 추적하였다. 여성의 미덕은 순종적인 행동방식의 보증이자 상관물인 반면에 남성의 엄격함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지배의 윤리에 속했다. 다시 말해 그가 말하는 성의 역사는 극소수 자유로운 남성들의 특권이었고, 여성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푸코는 자기 배려적이고 자기의 삶을 반성하는 윤리적 주체를 남성 중심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이고 귀족적인 사회윤리에 대해 비판적인 안목을 제시한다. 이러한 푸코의 성 이론은 페미니스트들의 주목과 지지를 받고 있다.

푸코는 급격한 도덕규범의 해체를 보이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주체를 장려하는 실천적 태도를 요구한다. 우리 스스로 윤리적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 형성과 자기 창조의 과정, 즉 자기 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주체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의 배려인데, 이것은 폐쇄적인 자기애나 이기주의가 아니라 친족 관계, 우정, 사회적 의무를 가리킨다. 현대 사회 역시 남성과 여성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존재이다. 오늘날 여성은 '여성성'이라는 미명아래 성적 억압을 받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의 사고, 여성의 문화를 이해하고,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경험적 주체로서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 두 성의 아름다운 관계맺음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참고 문헌

1. 푸코의 저작

미셸 푸코, *Les Mots et les Choses*, Gallimard, 1966.
『말과 사물』, 이광래 옮김, 민음사, 1997.

_____, *L'archéologie du Savoir*, Gallimard, 1969.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옮김, 민음사, 2002.

_____, *L'ordre du Discours*, Gallimard. 1971.
『담론의 질서』, 이정우 옮김,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5.

_____, *Surveiller et punir : Naissance de la prison*, Gallimard. 1975.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 2003.

_____, *Technologies of the self*,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8.
『자기의 테크놀로지』, 이희원 옮김, 동문선, 2002.

_____, *Histoire de la Sexualité 1 : La voloté de savoir*, Gallimard, 1976.
『성의 역사 1 : 앎의 의지』, 이규현 옮김, 나남출판, 2004.

_____, *Histoire de la Sexualité 2 : L'usage des plaisirs*, Gallimard, 1984.
『성의 역사 2 : 쾌락의 활용』, 문경자・신은영 옮김, 나남출판, 2004.

_____, *Histoire de la Sexualité 3 : Le souci de soi*, Gallimard, 1984.
『성의 역사 3 : 자기에의 배려』, 이혜숙・이영목 옮김, 나남출판, 2004.

2. 푸코에 관한 이차 문헌

박정자, 『빈센트의 구두』, 에크리, 2005.

양운덕, 『미셸 푸코』, 살림출판사, 2005.

윤평중,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 합리성과 사회비판』, 교보문고, 2000.

윤효녕 외, 『주체 개념의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이광래, 『미셸 푸코 :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까지』, 민음사, 1999.

이은선, 「유교와 페미니즘, 그 관계맺음의 해석학」, 『유교와 페미니즘』, 철학과 현실사, 2001.

홍은영, 『푸코와 몸에 대한 전략』, 철학과 현실사, 2004.

개리 거팅, 『미셸 푸코의 과학적 이성의 고고학』, 홍은영・박상우 옮김, 백의, 1999.

드레피스・라비노우, 『미셸 푸코 ;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서우석 옮김, 나남출판, 1994.

라마자노글루 외, 『푸코와 페미니즘 : 그 긴장과 갈등』, 최영 외 옮김, 동문선, 1998.

뤽 페리・알랭 르노, 『68사상과 현대 프랑스 철학』, 구교찬 외 옮김, 인간사랑, 1997.

마리 프랑스와즈 코트 잘라드 외, 『오늘을 위한 프랑스 사상가들』, 이상률・양운덕 옮김, 청아출판사, 1995.

메르키오르, 『푸코』, 이종인 옮김, 시공사, 2003.

미셸 푸코 외,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황정미 옮김, 새물결, 1995.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옮김, 새물결, 1999.

장 보드리아드, 『소비의 사회』, 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1999.

질 들뢰즈, 『푸코』, 허경 옮김, 동문선, 2003.

케니스 H. 터커, 『앤서니 기든스와 현대사회이론』, 김용규・박형신 옮김, 일신사, 1999.

크리스 쉴링, 『몸의 사회학』, 임인숙 옮김, 나남출판, 1999.

3. 푸코에 관한 논문

강미라, 「푸코의 근대주체와 권력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고승규, 「性의 역사』를 통해 본 푸코의 권력이론」, 『강원인문논집』, 제7집, 1999.

구 진, 「푸코에 있어서 정치와 주체의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성훈, 「푸코의 권력이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정란, 「푸코 권력이론의 여성해방적 함의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배철영, 「한 여인의 성적 주체(정체성)의 계보학 : 사르트르와 푸코 사이에서」, 『대동철학』, 제15집, 대동철학회, 2001.

손장권 · 이경상, 「미셸 푸코의 근대적 주체구성론」, 『교육논집』, 제25집,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송영정, 「푸코 후기 사상에서 권력과 주체의 문제」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송은희, 「푸코의 성담론에서 보여지는 권력개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안현수, 「푸코 철학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양운덕, 「푸코의 권력계보학 : 서구의 근대적 주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경제와 사회』, 제35집, 한울, 1997.

양해림, 「푸코의 남성주체에 관한 몸과 성의 담론 : 『性의 역사』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31집, 범한철학회, 2003.

오생근, 「性의 역사』와 성, 권력, 주체」, 『사회비평』, 제13집, 나남출판, 1995.

윤종희, 「'구성되는 주체'라는 문제설정 속에서 비판담론의 전망에 관한 연구 : 마르크스와 푸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이승훈, 「푸코의 주체 개념」, 『한국언어문화』, 제21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2.

이정우, 「미셸 푸코의 담론공간 개념과 주체의 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철학	학 번	10011021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노 세 라 한문: 盧 세 라 영문: NO SE RA				
주 소					
연락처		E-MAIL			
논문제목	한글: 푸코의 주체 개념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Foucault's Conception of Subject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조건부 동의( ) 반대(○)

2007년 2월 일

저작자: 노 세 라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